

성경 근거한 복음적 선교정신 고취

한인 선교 지도자, 지도력 개발회의

세계 각 지역을 대표하는 한인 선교 지도자 250여 명이 선교 위기의 시대를 맞아 과거 한국교회의 성과주의 선교를 반성하고, 성경에 근거한 복음적 선교 정신을 따라 연합과 일치치를 이루는 데 앞장서기로 결의했다. 이들은 또 급변하는 세계와 세대의 선교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차세대와 MK 선교자원을 동력화하며, 선교 본질 회복, 연구 개발과 연장 교육, 현지 교회 및 지도자들과의 협력을 통한 지도력 이양을 위해 노력하기로 다짐했다.

15년 차 이상 한인 선교사들이 참여한 한인세계선교사회(KWMF) 제7차 지도력 개발회의 및 중앙총회 선교대회가 지난달 24~27일까지 인도네시아 발리섬 인나 그랜드 발리 비치 호텔(Inna Grand Bali Beach Hotel)에서 은혜 가운데 마쳤다.

‘한국교회의 반성과 혁신’을 주제로, ‘한국선교의 미래를 준비하라’를 주제로 한 이번 대회 대표회장인 김종국 인도네시아 선교사는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로 처음부터 함께하신 모임이었다”며 “그동안 한국선교에 대한 부정적인 모습을 말씀 앞에서 회개했으며, 한인세계선교사회, 한국세계선교협의회(KWMA), 한인세계선교협의회(KWMC) 등 지도자들이 함께 어우러져 주님이 원하시는 한국교회의 미래선교 방향을 함께 찾고 고민하는 귀한 시간이었다”고 2일 소감을 밝혔다. 그는 “이제 한층 더 발전된 한국선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지도자들이 더욱 겸손하게 주님의 인도함을 받고 나아갈 때 한국선교의 내일은 소망이 있다고 확신한다”고 덧붙였다.

이지희 기자



출연진 모두가 함께 하는 연합합창 ‘할렐루야’를 끝으로 제 96주년 삼일절 및 이민 112주년 기념예배 음악회가 은혜롭게 마무리 됐다.

96주년 삼일절 및 이민 112주년 예배 성료

남가주한인목사회 주최, 피종진 목사 말씀 전해

남가주한인목사회(회장 백지영 목사)가 주최하고 남가주기독교교회협의회(회장 최혁 목사) 및 본사를 비롯한 언론사, 그리고 LA한인회 등 기타 일반 단체가 함께 후원한 ‘제 96회 삼일절 및 이민 112주년 기념예배 음악회’가 1일 오후 6시 30분 월셔연합감리교회(담임 정영희 목사)에서 교계를 비롯, 각계 각층으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참석한 가운데 성료됐다.

이날 1부 예배는 백지영 목사의 사회로 시작되어 엄규서 목사(남가주한인목사회 수석부회장)의 개회기도, 찬송 447장(오 신실하신 주), 심진구 목사(남가주한인목사회 부회장)의 성경봉독, 글로리아찬양단(지휘 이준실)의 특별찬양, 피종진 목사의 말씀선교 등으로 이어졌다.

피종진 목사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요:8:29-32)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 “먼저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드린다. 세계 어느 민족보다 유난히 많은 역경을 겪어온 우리 민족에게 일제치하로부터 독립을 얻었던 삼일절의 의미는 하나의 국경일 정도로만 기억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그 의미를

다시 한 번 더 깊이 생각해야 한다. 그것은 정치적 주권 회복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의미함을 알아야 한다. 진리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말씀 안에서는 얼마든지 자유를 누릴 수 있다. 첫째 모든 죄악의 결박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다.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면 주의 보혈을 통해 모든 죄로부터 자유케 되기 때문이다. 둘째 압제로부터 자유로워진다. 우리 모두는 압제당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라고 했다. 또 “예수님과 함께하는 가정, 사회, 국가는 앞으로도 영원히 지켜주실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백 목사의 사회로 시작된 2부 기념식에서 백 목사는 인사말을 통해 “조국을 위해 생명을 걸고 대한독립만세를 부르며 일제에 저항했던 숭고한 삼일정신을 기리며 한국 이민자들이 미국땅에 개척자로 첫발을 디딘지 112주년이 되는 해를 기념하기 위한 음악회로서 의미가 매우 깊다고 본다. 말씀을 전한 피 목사님과 모든 출연진에게 감사한다”며 음악회를 통해 고귀한 삼일정신이 우리 모든 이민자들의 삶에도 영원히 함께하기를 소원했다. 김재권 장로

(남가주한인목사회 이사장)는 독립선언문을 낭독하여 모든 참석자들의 마음을 숙연하게 하기도 했다.

제 3부는 유명 합창단, 연주자, 그리고 성악가 등이 함께 꾸미는 음악회가 이어졌다. 코리아어메리칸영아티스트(지휘 서지혜)가 ‘선구자’를 합창하며 문을 열었다. 이어 지경(소프라노), 에스터 추 및 오렌지카운티 첼로 앙상블이 꾸민 연주, 장진영(베이스), 미주여성코랄(지휘 오성애), 전승철(테너), 백철(클라리넷 독주), 황해경(소프라노), 필그림합창단(지휘 진정우)에 이어 음악감독 송규식 목사 지휘 하에 전 출연진이 함께 한 연합합창 ‘할렐루야’를 끝으로 모든 행사가 은혜롭게 성료됐다.

한편, 이날 음악회에서는 소프라노 황해경, 클라리넷 백철, 피아노 진정우가 협연한 안정준 곡의 ‘아리아리랑(서울아리랑)’은 아름다운 화음과 선율을 선사하며 참석자들에게 한국인으로서의 자긍심을 원 없이 높여주며 위로했다. 삼일정신의 고귀함과 울금음이 피어나는 귀하고도 환상적인 무대였다.

이영인 기자



남가주한인기독교원로목사회 제67회 총회에서 임명된 신임원들

원로목사회 신임회장에 노재룡 목사

남가주한인기독교원로목사회가 제67회 총회를 2월 24일 오전 10시 30분 동양선교교회에서 개최해 신임회장에 노재룡 목사를 뽑았다. 이 외에도 제1부회장 강영창 목사, 제2부회장 최훈일 목사, 총무 조영제 목사, 서기 배수호 목사, 회계 이국봉 목사, 부회계 신원철 목사, 회원부장 홍준만 목사, 친교부장 최대준 목사, 선교부장 신희성 목사 등이 임명됐다.

1부 개회예배에서는 최낙일 목사의 인도로 최훈일 목사가 기도하고 강영창 목사가 성경 빌립보서 4장 5절을 낭독했다. 노재룡 목사가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한 후, 최낙일 목사가 축도했다.

이어진 총회에서는 개회선언에 이어 회순채택, 전회록 낭독, 총무 보고, 감사 보고, 회계 보고 등 각 부서 보고가 이어졌다.

나라정비 타이어 대리점
GOOD YEAR
 유럽차전문점
 SMOG CHECK
 범퍼·도어·바디복원·무료견적·Rent Car
 323.734.4881 | 월~금: 8am~6pm / 토: 8am~5pm | 1201 S.Western Ave, LA 웨스턴과 12가

천천히 다 둘러보고 오세요~
당신의 마지막 카드
 13년 경력의 자동차 판매 전문인, 찰리 정
현대 HYUNDAI
 찰리 정 (FLEET MANAGER) | 213-276-8959 | email: usajyk@gmail.com

미드웨스턴 침례신학대학원
 교회를 위한 실천적 복음주의 신학의 새로운 물결

미드웨스턴 침례신학대학원 한국부
 남침례교 6대 신학교(HLC & ATS 인가)
 100% 한국어
 I-20 발급
 저렴한 등록금과 장학혜택

목회학석사
 교육목회학박사
 목회학박사

박사과정 (한 주간, 인텐시브로 강의)
 교육 목회학박사
 목회학박사

석사과정 (100% 온라인)
 온라인 목회학 석사
 신학연구석사
 신학연구상담학석사

성경사역학 철학박사 (Ph.D. in Biblical Studies with Biblical Ministres Emphasis)
 성경적 교회론을 바탕으로 교회 목양사역을 이론적, 실증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학위과정입니다.
 입학자격 : M.Div. 학위 소지자

교육목회학 박사 (D.Ed.Min.)
 일반 교육학 박사(Ed.D.)와 동등학위이며 기독교적 관점에서 교회교육을 다루는 학위입니다.
 입학자격 : M.Div. 학위 + 교육학과목이수자 혹은 기독교교육학석사학위 + 신학과목이수자

목회학 박사 (D.Min.)
 목회학 박사과정은 성경적 모델 연구를 통해 목회 현장에서의 실천과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입학자격 : M.Div. 학위 소지자

온라인 목회학 석사과정 (M. Div. Online)
 (온라인) 정규 목회학 석사(M.Div.) 과정은 본교만의 특별한 과정입니다.
 입학자격 : 정규 학사 학위 소지자

사이트: www.mbts.edu/ko
 연락처: 816-414-3754, ks@mbts.edu



더 블레싱 세미나에서 윤임상 교수가 합창단의 찬양 연주를 시연하고 있다.



캘리포니아노회 설립예배에 본국 백석총회 임원들(맨 앞줄 좌측에서 두번째가 김진범 서기, 세번째가 이종승 부총회장, 다섯번째가 김자중 회의록서기)도 참석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찬양은 어떤 찬양?

우리가 부르는 수많은 노래 가운데 하나님이 받으시는 찬양은 어떤 찬양일까? 3월 1일 남가주살롬교회에서 월드미션대학교와 한국의 빛나라출판사 주최로 흥정표·민인기·윤임상 3인 초청 세미나 'The Blessing(더 블레싱)'이 열렸다.

이 세미나는 남가주 지역의 교회 찬양대원들 및 지휘자, 반주자들, 일반성도들을 위해 교회음악사역에 꼭 필요한 음악적 훈련과 영성에 대해 다루었다.

이 세미나에서 흥정표 교수(서울장신대)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찬양'이라는 주제 아래 강의했다. 그는 출애굽기 15장에서 모세와 이스

라엘 백성이 출애굽하며 한 노래를 찬양의 시초로 보며 찬양의 개념을 정의했고 이어 찬양대에 관해서는 역대상9장, 23장, 25장 등에서 그 직위와 규모, 구조 등을 살펴봤다.

이외에도 민인기 교수(수원시립합창단 상임지휘자)는 '찬양대를 위한 음악적 테크닉', '효과적인 찬양 연습', '은혜로운 찬양대가 되려면', '실력 있는 찬양대가 되려면' 등에 관해 강의했고 윤임상 교수(월드미션대)는 '영성과 실력이 함께하는 교회음악인'이라는 주제로 강의하고 본인이 지휘하는 라크마합창단이 빛나라의 합창곡들을 시범 연주로 선보였다.

문소현 기자



아룬 다스 목사가 군사랑선교회 월례모임에서 인도 선교 상황을 보고하고 있다.

군사랑선교회 월례모임 및 선교보고회

군사랑선교회(CLMM, 회장 김희창 목사)는 지난 2월 28일에 월드미션대 6층 강당에서 아룬 다스(Aroon K. Dass) 목사 초청 설교 및 선교 보고회를 가졌다. 다스 목사는 인도 편자브 지방의 바탈라교회에서 담임으로 시무하고 있다.

그는 "지금 인도는 선교적으로 상당히 중요하다. 힌두교인들, 시크교인들이 기독교로 개종하고 있으며 인도의 기독교가 팽박 중에서도 잘 성장하여 인도 ECI 교단의 경우 4000여 교회로 성장했다"고 전했다.

아룬 다스 목사는 금번에 남부개혁신학대학원(SRTCS LA 캠퍼스) 문화교류학 박사 과정(D.ICS)에 김

희창 목사의 장학금을 받고 입학했다. 김 목사는 이 학교 LA캠퍼스 책임임자이기도 하다. 김 목사는 24년 전 자신이 한국에서 담임했던 길갈 교회에서 아룬 다스 목사를 만났다. 당시 아룬 다스 목사는 2년간 교육전도사로 사역했고 성전 건축 자금을 후원받기도 했다.

이번 방문에서 아룬 다스 목사는 상수리교회(담임 이종애 목사)에서 설교하고 미주비전교회(담임 이서 목사) 기도회, 남부개혁신학대학원 아침경건회 등에서 메시지를 전했다.

한편, 군사랑선교회는 매월 마지막 토요일 오전 11시에 월드미션대 6층 강당에서 정기모임을 한다.

예장 백석총회 캘리포니아노회 설립대

이종승 부총회장 등 본국 임원들 참석해 노회 설립 축하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백석) 캘리포니아노회가 지난 2월 27일 오전 조이풀교회(담임 김정호 목사)에서 설립예배를 갖고 노회 설립을 공포했다.

이 노회 설립 관련자에 따르면, 캘리포니아노회는 이곳 미주 지역, 특별히 오렌지카운티와 샌디에고 지역 등지에 흩어져 있는 백석 목회자와 사역자, 많은 동문들 그리고 소속 교단없이 사역하는 목회자들과 힘을 합쳐 백석교단을 더욱 널리 알리며 미주 지역 복음화에 앞장서고 상호간의 친교를 통해 백석인의 자긍심과 긍지를 고취시키고자 함에 그 목적을 두고 있다.

한국 백석총회 측에서는 이종승 목사(현 부총회장), 김진범 목사(총회서기), 김자중 목사(총회회의록서기) 등이 참석하여 노회설립예배를 축하했다.

이날 김진범 목사의 사회로 시작된 설립예배는 기도회 김자중 목사, 성경봉독에 김진범 목사, 설교에 이종승 목사, 총회정치국 위임하에 김진범 목사의 노회 설립 경과 보고, 이종승 목사의 노회 설립 공포 등의 순서로 이어졌다.

이종승 목사는 "주님이 반석되시는 노회"(마16:16-19)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 "첫째 예수를 올바르게 알고 믿으며 올바른 신앙고백과 순종을 통해 성령이 역사하는 노회가

되도록 해야 한다. 둘째 나의 자아는 온전히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을 나의 진정한 주인으로 삼아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노회가 되게 해야 한다. 셋째 노회의 모든 문제는 주님께 맡기고 주님 말씀대로, 주님 뜻대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그렇게 순종하고 나아가다 보면 캘리포니아노회가 복을 받게 되고, 이 노회가 복을 받으면 이에 소속된 모든 교회가 복을 받게 될 것이며, 그 소속 교회가 복을 받으면 그 교회에 출석하는 모든 성도가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는 결과적으로 캘리포니아 지역을 넘어 미주 전 지역의 복음화에 앞장서게 됨을 의미한다"고 말하며 "이를 가능하게 하려면 주님이 캘리포니아노회의 반석이 되셔야 할 것이다. 그러하면 세상으로부터 밀려오는 모든 시련과 환란을 능히 이겨내고 이 노회가 더욱 굳건하게 세워져 나갈 수 있게 될 것이다"라고 강조하며 서로 연합하고 협력해 가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노회가 될 수 있게 해 달라고 당부했다.

캘리포니아노회는 노회 설립이 공포됨으로써 본격적인 노회 활동에 들어갈 수 있게 됐다. 우선 강도 사 고시 지원자들이 한국 총회에 직접 가지 않아도 노회를 통해 모든 서류 제출 과정과 시험 응시 등이


가능한 길이 열리게 된다. 물론, 그 실질적인 시행에는 다소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됨으로써 많은 강도사 응시자들에게 편리를 제공함과 동시에 검증된 양질의 사역자를 배출할 수 있게 됐다.

또한 노회 임원진은 4월에 열릴 총회에서 결정될 것이며 CRC 교단과의 MOU도 추진 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로써 백석총회는 캘리포니아노회와 미주서부노회를 통해 미주 지역 복음화와 영혼구원에 보다 활기찬 활동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한편, 백석총회는 대신총회와의 통합을 통해 한국 내 최고 교단으로 발돋움하고 있다. 이종승 목사는 현재 백석 소속 4천 3백여 교회에 대신총 2천여 교회 중 절반 이상이 합류할 것으로 기대되는 가운데 분열되어 있는 한기총과 한교연의 연합 촉매제 역할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이는 "대신총회와 백석총회를 대표하는 우리들은 거룩한 하나님의 종으로서 분열된 한국교회의 상처를 치유하고 다시 한 번 부흥의 시대를 만들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교단 통합에 합의한다"는 내용에 합치되는 매우 발전적인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이영인 기자



새빛한의원
Saevit Acupuncture clinic

323-735-6365 올림픽+하바드
3130 W. Olympic Blvd, Suite 380 Los Angeles, CA 90006

한방내과, 한방성형 & 통증클리닉

늘 환자의 고통을 함께 나누며 환자의 몸이 지니고 있는 "자연치유력"을 살려내는 새빛이 되겠습니다.

수술없는 한방 성형
치진턱선을 올려 젊음 유지
아름다운 여인이 되어보세요.

한방감기 특별처방!!
(5일분-\$35)

약력 북경중의약대학졸업 전 한의과대학 교수역임(삼라한의원)

교통사고 · 각종보험 · 여행자보험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요한복음 8:32)

2015년 "이단 대책 세미나"

남가주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각종 이단과 사이비 세력이 조직적인 포교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바 이에 오렌지카운티 목사회는 남가주 지역 교회협의회와 목사회, 기독교 단체들의 후원으로 그들의 실체를 아래의 "이단 대책 세미나"를 통해 극명히 밝혀내어 이단과 사이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더욱 분명히 하고자 합니다.

—아래—

■ 강사 : 탁 지원 목사
-국제종교문제연구소 소장
-월간 "현대 종교" 발행인
-서울신학대학교 교수
-코스타 강사


■ 일시 : 2015년 3월 9일(월) 오후 12시 등록
1시 - 6시(1,2강)
3월 10일(화) 오후 3시 - 9시(3,4강)/2일간

■ 장소 : 뉴라이프선교교회 (유성국 담임목사)
6633 Beach Bl. Buena Park, CA 90621.

■ 참가대상 : 목사, 사모, 전도사, 신학생, 평신도 리더.

■ 참가비 : \$30. (간식과 식사 포함)

■ 사전 등록과 기타 문의 사항 :
OC 목사회 총무 박현영 목사 (714)944-2930.



오렌지카운티 목사회
회장 객재필 목사



오렌지카운티교협과 민주평통 OC-SD 지부 주최로 삼일절 기념 평화통일 염원 기도회가 열렸다.



지저스홀릭의 찬양예배 모습

“통일의 시작은 복음으로부터”

OC교협-평통 주최 평화통일 염원 기도회

오렌지카운티 한인들이 삼일운동의 정신이 평화통일로 승화되길 기원하는 기도회를 드렸다. 3월 1일 오후 갈보리선교교회에서 열린 삼일절 기념 평화통일 염원 기도회에서 100여 명의 참석자들은 분단 70주년을 아파하며 통일이 속히 이뤄지길 기도했다.

심상은 목사는 대표기도에서 “통일은 이상승배에 빠진 북한 동포들이 하나님께 돌아올 때에만 가능하다”면서 “무너진 제단을 세워 주소서” 기도했다. OC교협 회장 김기동 목사는 “꿈꾸는 것 같았다(시126:1-6)”는 제목의 설교에서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만에 귀환했을 때 마치 꿈을 꾸는 것 같았다고 한다”면서 “불가능이 가능해진 사건”이라고 말했다. 그는 “삼일운동은 온 국민의 운동, 평화 운동,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운동이었다. 분단 70주년을 맞이한 우리도 이 삼일운동의 정신을 이어받아 통일운동을 하자.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불가능이 가능해진다”고 강조했다.

권석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OC-SD 지부 회장은 “일제의 압제에서 해방이 된 기쁨과 동시에 조국 분단의 쓰라림이 있는지 70년째”라며 “우리의 간절한 기도가 남 북한 당국자는 물론 주변국 지도자들까지 감화시키고,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과 공의로우심을 믿고 우리의 소망이 응답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OC교협과 평통OC-SD, OC목사회·원로목사회·기독교평신도연합회·장로연합회·한인회가 주최 및 후원한 이 행사에는 최석호 열반인시장, 스티브 황보 라팔마 시의원

등 주류사회 정치인들도 참석했다. 이날 가장 주목을 받은 특강 시간에는 김요한 평화통일연구소 소장이 메시지를 전했다. 그는 “철저한 마르크스-레닌주의자였던 저를 변화시켰던 것은 민주주의나 자본주의가 아닌 복음이었다”면서 “지금 통일이 되면 2300만 명의 북한 난민들로 인해 대한민국이 큰 혼란에 빠질 수 있다. 통일 준비는 북한 주민들의 심령을 치유하는 것에서 시작되어야 하며 통일은 정치의 통일이 아닌 사람의 통일이 먼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OC교협과 평통 OC-SD는 이날 건원 2000달러의 헌금을 김요한 소장에게 전달했고 김 소장은 미주겨레사랑이란 북한 구호 단체에 전달했다.

김준형 기자

노문환 목사와 함께 하는 치유 콘서트



집회를 마친 후 김용철 담임목사와 노문환 목사

열반인중앙교회(김용철 담임목사)에서 지난 2월 28일 오후 7시 30분 <찬양사역자 노문환 목사와 함께 하는 치유 콘서트>를 열었다.

노 목사는 찬양 중 “3000원 짜리 피리를 누가 연주하느냐에 따라 아름다운 음악이 나오듯, 하나님이 우리 삶에 임재하시면 우리가 위

대한 일을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국의 1세대 찬양사역자인 노 목사는 늘 노래찬양전도단 단장을 역임한 바 있다. 서울 극동방송에서 <노문환, 이정림의 7080 가스펠>, CBS에서 <찬양예배 오직 주님께> 등 방송인으로도 잘 알려져 있고 현재는 ACTS29 미니스트리 대표다.

그는 열반인에서의 집회를 마친 후, LA임마누엘선교교회에서도 집회를 인도하고 한국으로 귀국했다.

문소현 기자

미주 1.5세들의 음악 디아스포라 워십 음악 이끌까?

지저스홀릭 음반 발매 “복음의 기쁨 나누겠다”

예수에 미친 한인 1.5세 청년들이 최근 워십 앨범을 발매했다. 지저스홀릭 밴드(Jesusholic Band)가 한국의 주요 CCM 음반사인 트리니티를 통해 발매하는 제1집 워십 앨범 <디아스포라(흠어진 자들의 노래)>는 한인 1.5세의 CCM이 한국과 전세계 디아스포라 CCM 시장에 미칠 영향력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잣대가 될 수도 있기에 주목된다.

지저스홀릭 밴드는 LA를 기반으로 1.5세 젊은이들이 함께 예배하는 지저스홀릭 무브먼트 내의 워십밴드다. 이미 12년 동안 1.5세 청년, 청소년들이 함께 해 온 내공있는 단체로 예수에 중독됐다는 이름처럼 이들의 음악과 사역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집중되어 있으며, 이를 통해 복음의 기쁨을 이민 세대 젊은이들에게 나누고 있다.

이 밴드에는 버클리음대와 MI 등 미국 동서부의 다양한 음대에서 공부한 뮤지션들이 참여하고 있으며

모던락 장르를 기반으로 예배와의 접목을 시도하는 것이 특징이며 대부분이 박용수 전도사와 멤버들의 자작곡이다. 따라서 1.5세 이민 사회와 교회의 상황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지저스홀릭 측은 “음악성뿐 아니라 흠어진 이민 1.5세 젊은이들을 십자가의 복음으로 이끈다는 명확한 비전과 목적을 갖고 정기적인 예배, 투어 및 공연을 통해 지속적으로 미국의 이민 세대 젊은이들에게 도전을 주어 왔다”고 밝혔다.

박용수 전도사는 이민 사회의 미래인 1.5세 청소년들이 교회를 이탈하고 있는 시점에서, 이들이 가지는 교회에 대한 거부감을 음악 및 찬양 사역을 통해 해소하며, 교회와 청소년 간의 접촉점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지저스홀릭 밴드 사역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문의) 김상훈 전도사, 562-673-4552
조정민 기자

OC평신도연합회 조찬기도회 및 세미나

오렌지카운티기독교평신도연합회가 오는 3월 7일 토요일 오전 7시 오렌지카운티한인교회(14381 Magnolia St. Westminster, CA92683)에서 제278회 정기조찬기도회 및 세미나를 연다.

예배에서는 심상은 목사(갈보리선교교회, OC교협 부회장)가 말씀을 전할 예정이며 한국과 미국을 위한 중보기도의 시간도 있다.

건강세미나에서는 로즈힐메모리얼팍의 재키 정 집사가 장래 준비와 관련된 강의를 전한다.

한편, 이 연합회는 5월 어린이 합창 축제, 6월 교회 연합 체육대회, 7월 멕시코 선교여행, 8월 광복절 기념 행사, 9월 가을 말씀 축제, 10월 교회 연합 성가합창제 등의 행사를 앞두고 있다.

문의) 215-500-5449

보험료를 대폭 낮추었습니다!

가장 싼 자동차 보험 알선

음주운전자들을 위한 특별 자동차 보험

각종 사업체, 화재보험 및 모든 보험문의 환영

24hr 한국어 서비스

굿모닝 보험 213.761.9990 KEVIN YOO

믿을 수 있는 농협 한삼인

창고대 방출

농협 고려인삼 한삼인 서부총판 1-866-902-8282 www.korginseng.com

LA 지부: 3130 W Olympic Blvd #120 LA CA 90006 총판지부: 1701 W Orangefor Ave, Fullerton CA 92833 T.323.737.8888 (8월말~이벤트~서북한방일부) T.213.453.6624 (이리왕야영일부)

홍삼순액

100%홍삼농축액

100g 소비자가	\$90	240g 소비자가	\$185
2개 구입시 \$150		2개 구입시 \$370	
3개 구입시 \$180		3개 구입시 \$555	
4개 구입시 \$230		3개 구입시 \$450	

30포 \$120
60포 \$180
90포 \$255
120포 \$320

www.podental.com

피.오.덴.탈 Dental Plan \$10/월

30 DAY MONEY BACK GUARANTEE

- 누구나 가입할 수 있습니다.
- 회원카드를 받는 즉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피오덴탈은 필요한 치료만 정직하게 제공합니다.

전화가입 (213) 944-5067 (714) 713-1735

온라인가입 www.podental.com

★ 코페이: \$35/visit	• Deep Cleaning: \$75/quadrant
• Exam: 무료	• 발치(Soft Tissue): \$40
• X-ray: 무료	• 발치(Partial Bony): \$65
• Scaling: 무료	• 발치(Full Bony): \$75
• 발치(Simple): 무료	• 크라운(PFM): \$300 + options
• Filling(Amalgam): \$5/surface	• 신경치료: \$150+
• Filling(Rasin Base): \$15/surface	• 틀이(Full): \$375+Lab fee

◆ **Service Location**
Los Angeles, Torrance, Fullerton/Anaheim/Cerritos/Norwalk, Riverside Irvine/Garden Grove/Santa Ana, Rowland Heights/Diamond Bar

This plan is not insurance and is not intended to replace insurance. The plan provides discounts at certain dental care providers for dental services. The plan does not make payments directly to the providers of dental services. Plan members are obligated to pay for all dental care services.

PEOPLE ORIENTED HEALTH CARE, INC. 6262 BEACH BLVD. BUENA PARK, CA 90621 TEL. 1-800-341-0884 FAX. 714-644-8223 WWW.POHEALTHCAE.COM

· 김인수 목사의 한국교회사

초기 한국 교회는 왜 급성장했을까?(IV)

초기 한국 교회가 급성장한 일곱째 이유는 한국 교회는 초기부터 신앙과 생활을 양분시키지 않았다는 점이다. 기독교 신앙을 받은 이들은 즉시 생활의 변화를 가져오게 하는 정책을 수립했다. 내면적 신앙과 외면적 생활을 일치시키는 신앙의 형태를 수용했다. 삶의 변화는 사회, 민족, 국가의 변화를 가져왔다. 이로써 민족 수난기에 한국 교회는 민족과 더불어 고난의 과정을 경과하였고, 개화와 항일의 대열에 앞장 설 수 있었다.



김인수 목사
전 미주장로회신학대 총장

으로 응답하시는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하였다.

또 한국에 기독교가 유입되던 시기는 국가와 민족적으로 무척 어려운 때였다. 그러므로 개인과 가정 그리고 민족과 국가를 위해 기도할 일이 너무도 많았다. 따라서 예배나 개인적 기도 시간이 많은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1907년 대부흥운동 기간에 한국에서 세계 어느 교회에도 없는 독특한 새벽기도, 철야기도, 통성기도가 일어난 것도 결코 우연이 아니다. 미국 북장로교회 해외 선교부 총무 브라운(A. Brown)도 한국 교인들의 기도 열정에 대해 다음과 같이 기록했다. "평양에서 열리는 한 기도회에 참석자가 1,000명 이하로 내려가지 않으며, 1,400명이 넘는 경우도 종종 있다. 아마 세상에서 가장 큰 규모일 것이다. 우리는 서울 연못골교회[연동교회]에 참석했다. 1,000명 정도의 신자들이 모였다. 우리가 어느 저녁에 선천교회에 갔을 때 1,200명이 예배당을 가득 채웠다. 한국인들이 기도하는 것을 들으려 먼 거리를 갈 만한 가치가 있다. 그들은 매일 하나님과 접견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들처럼 고개를 숙이고 찬양과 찬미와 간구를 쏟아 놓는다." 그는 한국 교인들이 기도회에 모이는 열정적인 모습을 생생히 기록으로 남겼다.

평양에서 숭실학교를 세운 베어드(W. Baird)는 철저한 복음주의자였다. 그러나 그의 교육 철학은 현실주의에 기초한 복음주의를 교수하는 것이었다. 그는 항상 학생들에게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내가 조선에 와서 전도하는 목적은 장래 천당에 가서 영적인 구원 얻는 것보다도 현재 육적인 구원으로써 전도의 요체를 삼는 것이다"고 역설했다. 물론 이 말은 그가 교육자로 학생들에게 한 것이지만, 이 말 속에 복음주의와 현실주의가 양분되지 않고 병립해 있음을 엿볼 수 있다.

다음 여덟째, 한국 교회 성장의 밑거름은 교인들의 기도운동이었다. 한국의 재래 종교 중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진 종교는 무교(巫敎)이다. 무교의 기본은 기도와 정성이다. 이런 문화적 배경을 가진 한국인들이 기독교에 귀의한 후에도 기도 관행은 계속된다. 오히려 평소의 기도 습성은 이제 진정한 신인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금까지 기도의 대상이던 피조물이나 잡신에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살아계시고 인격적이며, 기도에 구체적

사와 장로 한 사람이 교회당에 와서 새벽 기도를 드리는 습관을 가졌다. 다른 교인들도 이 소식을 듣고 같이 참석할 수 있도록 부탁하였다. 길 목사는 '누구든지 원하면 며칠 동안 새벽 4시 반에 모여 기도 할 수 있다'고 알렸다. 그 이튿날에는 새벽 1시 반부터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였고, 2시에는 사람들이 더 많이 모이더니 4시 반에 가서는 400여명이 모였다." 새벽기도회가 시작되던 때의 모습을 설명하고 있다. 두 말 할 것 없이 한국교회 성장의 밑바닥에는 교인들의 철저한 기도가 깔려 있었다.

아홉째, 한국 교회는 사회개혁과 애국애족의 교회로 정착했다는 점이다. 한국 교회는 초기부터 봉건적, 유교적 전통에 매여 있는 사회를 기초부터 개혁하는 일에 앞장섰다. 여성의 인권 신장, 차별적 신분제도의 철폐, 민권의 존중, 노동 가치의 고양, 미신타파 등의 사회개혁은 많은 사람들에게 기독교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이에 따라 기독교 신앙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의 숫자가 늘어났다. 한국교회에 여성 교인들이 남성 교인보다 훨씬 많은 것은 우연이 아니다. 수 천 년 동안 억눌려 있던 여성들이 교회를 통해 한 인격체로 존중받게 되었다. 아들을 낳지 못한다는 이유로 부인대접을 받지 못하고, 남편이 집을 얻어 아들을 보는 현실 앞에 절망하던 여인들이 기독교를 통해 이런 잘못된 문화의 철크를 보면서 기독교의 소중함을 깨닫게 된다. 양반, 중인(中人), 상인(常人: 상놈), 천민이라는 계급 사회에서 차별받던 천민들, 백정, 노비, 남사당, 기생 등 그야말로 짐승 취급 받던 부류의 사람들이 교회에 몰려나오는 것은 전혀 이상할 것이 없다.

앞으로 살펴볼것지만, 일제 강점기 동안 저들의 혹독한 억압 속에서 교회는 그 어느 집단보다 더욱 애국, 애족의 모습을 보임으로 자연히 기독교가 외래 종교지만 우리 민족이 믿기에 좋은 종교로 인식되었다. 일선에서 국가와 민족을 위해 일하는 지사(志士)들 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재래 종교보다 훨씬 애국, 애족 종교로 정착해 가는 모습을 보고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이 늘어난 것은 자연스런 현상이었다.

(계속)



안창훈 목사 취임예배를 드린 후 기념촬영

늘푸른선교교회 안창훈 담임목사 취임

애나하임에 위치한 늘푸른선교교회의 4대 담임에 안창훈 목사가 취임했다. 3월 1일 주일 오후 4시 취임감사예배에서 안 목사는 "새롭게 일어날 하나님의 일들을 기대한다. 주님과 함께 하며 이웃을 섬기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공유하며 이 사랑을 이웃에게 전하는 믿음의 공동체를 꿈꾼다. 함께 나아가자"고 말했다.

"순서대로"라는 제목으로 설교한 조성 목사(굿타임교회)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사랑의 표현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주님을 사랑

하고 뜨겁게 섬기는 교회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날 예배는 박경식 목사의 사회로 시작됐으며 설교 후에 조성 목사가 취임 서약과 교인 서약을 받았다. 이어 이정엽 목사(LA온누리교회), 심상래 목사(한마음교회)가 축사를, 김경환 목사(실크로드미션)가 권면을 전했다.

교회 주소) 2216 E. South St. Anaheim, CA92806

문의) 714-808-9191

www.missionways.org

문소현 기자



미주찬송가공회 주최로 찬송 FESTIVAL이 로렘장로교회에서 열렸다.

찬송가를 사랑하는 이들의 대축제

찬송가를 사랑하는 남가주인들이 2월의 마지막 밤을 찬송가로 아름답게 수놓았다. 미주찬송가공회(박재호 회장)가 주최한 '찬송 FESTIVAL'이 2월 28일 로렘장로교회에서 8개 팀이 참여한 가운데 열렸다.

먼저 주안예교회 사랑여성성가대가 '그 이름 비길 데가 어디 있나', '매일 주만 섬기리라'를 불렀고 이어 조이풀남성합창단이 '영광', '내 영혼이 은총 입을'를 불렀다. 로렘장로교회 시온성가대는 '신자 되기 원합니다',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등 한국인이 특별히 사랑하는 찬송가를 연주했다. 바리톤 김동근의 봉헌 찬양에 이어 남가주사랑의

교회 예향찬양대가 '나의 평안', '주의 동산으로', 한아름선교합창단이 '주는 반석', '시편 20편', 미주여성교회합창단이 '영광과 존귀를 주님께',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레위남성성가단이 '참 아름다워라', '시편 20편'을 불렀다. 마지막은 모든 이들이 함께 '이 믿음 더욱 굳세라'를 불러 대미를 장식했다.

미주찬송가공회 찬송 FESTIVAL은 올해가 3회째로, 특별히 이번 행사는 찬송에 대한 새로운 이해와 도전의 계기를 마련하고 찬송을 전도의 장으로 승화시키고 하는 목적으로 개최된 것이었다.

문소현 기자

기독교일보

편집고문 : 박희민, 장재호, 이원삼, 박기호, 방지각, 김중언, 고승희, 민중기, 정우성, 김혜성
발행인 : 이인규
고문변호사 : 정찬용
지사망 : 로스앤젤레스, 뉴욕, 샌프란시스코, 워싱턴DC, 시카고, 애틀랜타, 시애틀

대표전화 : (213) 739 - 0403 / E-mail : chdailya@gmail.com
Payable to order : Christianity Daily
주소 : 621 S. Virgil Ave, Suite 260 Los Angeles, CA 90005

선교사님들께 GO!전도지를 보내세요!

28개 언어로 이미 730만부 이상 인쇄된 강력한 복음의 도구



조영장로

- ANC온누리교회 전도사역담당 12년 역임
- GO!전도집회/세미나 강사 (전국 한인교회, 멕시코교회)
- GO!전도 추천도서 출판: "나가자, 선포하자, 승리하자"
- GO!전도지 28개 언어로 730만부이상 인쇄
- GO!전도사역원 책임강사

GO!전도는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고 담대하게 전도하는 미주한인교회의 전도자들에 의해 시작된 놀라운 성령의 역사로 이미 수백만명의 영혼들에게 복음이 증거되는 축복을 허락하신 미주한인교회 현 상황에 꼭 필요한 강력하고 복음의 열매가 풍성한 새로운 전도전략입니다.

GO!전도사역원, Los Angeles, CA
www.GoNowSave.com
Tel: (661) 575-7744

다인종 영혼들에게 구원의 복음을 증거하는 GO!전도지



- (1) 한국어 (2) English (3) Spanish (4) 일본어 (5) 중국어 (6) Arabic (7) Burmese (8) Cambodian (9) Filipino-Tagalog (10) French (11) German (12) Haitian (13) Hindi (14) Indonesian (15) Italian (16) Javanese (17) Polish (18) Portuguese (19) Punjabi (20) Russian (21) Swahili (22) Telugu (23) Thai (24) Turkish (25) Ukrainian (26) Urdu (27) Vietnamese (28) 2개 언어 전도지(영어 & 스페니쉬) (29) 2개 언어 전도지(한국어 & 영어) (30) 3개 언어 전도지 (영어, 스페니쉬 & 한국어) (31) 어린이전도지 (영어 & 스페니쉬)

당신도 미국땅의 다인종들을 구원하는 전도자가 되세요!

이제야말로 우리 주변의 수많은 복남미 대륙의 다민족 영혼들에게 복음의 핵심이 들어있는 강력한 GO!전도지를 들고 활짝 웃으며 다가갈 기쁨과 담대함으로 구원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미주한인교회의 목사님들과 전도사역자들에게 희소식!

목사님들과 전도사역자들에게 FREE GIFT!

다음 내용을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GO!전도지 샘플과 GO!전도현장의 생생한 감동의 책, "나가자, 선포하자, 승리하자"를 FREE로 보내드립니다. Email: sync@GoNowSave.com (보내주실 내용: 목사님 이름, 교회 이름, 교회 주소, 우송 주소, 전화번호)

GO!전도집회/세미나를 추천합니다!

2월간의 GO!전도집회/세미나를 통해 모든 성도들이 구원의 감격을 정립/회복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한 애대는 마음을 품고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는 성숙한 신앙인들로 섬기는 교회의 부흥에 앞장서는 열정적인 신앙인들로 살아가도록 말씀과 복음의 현장에서 체계화하신 수많은 놀랍고 감동적인 강준들을 통해 도전하고 훈련합니다.

크리스천 자녀를 위한 골프 . 성경교실

저렴한 비용으로 골프와 성경공부를 함께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

성경공부를 통해 영성과 인성교육을 하며, 골프를 통해 집중력과 체력향상을 시켜줍니다. 귀한 자녀에게 이 두 가지를 함께 가르치는 전문인에게 믿고 맡겨주십시오. 달라지는 자녀의 모습을 보게 되실 겁니다.

* 픽업가능

▪ 성인을 위한 무료 골프교실도 오픈합니다. (성경공부 필수)

▪ 문의 : 최 제이콥 Professional (310-598-0746)
▪ Email : mrjacob601@hotmail.com

<최 제이콥>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New Bridge University Golf Management
The Reformed University 대학원
Dae Han Theological Seminary, U.S.A 선교학 Ph.D



세금무료상담

확실히
줄여드립니다!!

이정운 CPA


- 개인 및 사업체에 맞는 절세
- 웹사이트를 통한 온라인 서비스 및 고객 데이터베이스 구축
- IRS, FTB, SBOE, EDD 세금문제해결
- 저소득층 세금환불(ETC)
- TIN(개인납세자번호)신청 및 공증
- FAFSA, 소셜연금, 해외자산신고 상담
- 정확한 서비스와 저렴한 수수료

Tel (213)387-2004

www.cyleecpa.com

3130 Wilshire Blvd. Ste 405, Los Angeles, CA 90010

Tax season 연장근무!!
(평일 9 am - 8 pm, 토요일 10 am - 5 pm)
(무료주차!! Free Parking!!)



미주 대한 신학대학교

부설 Sports Mission College 스포츠 미션 대학교


미주 대한신학대학교는 1948년에 설립된 한국의 대한신학대학교(현 안양대학교 신학대학원)와 대성교단의 인준을 받아 미주교역자 양성 기관으로 1995년 5월 30일에 캘리포니아 주정부와 연방정부에 등록하고 주정부교육국의 학사, 석사, 목회학 박사, 신학박사의 학위를 수여할 수 있는 신학대학교로 인가를 받았습니다.

본 대학에서는 신학 공부를 함과 동시에 학교에서 자체 발행하여 수여하는 스포츠 학과 **Teaching License**를 취득할 학생을 모집합니다.

모집학과

▪ 대학부 : 신학과 (4년) - 고졸 및 동등학력자	▪ 대학원 : 목회학 석사 (3년) - 대졸 및 동등학력자
▪ 선교학과 (4년) - 고졸 및 동등학력자	▪ 선교학 석사 (2년) - 대졸 및 동등학력자

Teaching License 수여 과목 : 골프, 테니스, 체조, 태권도, 승마



**스페셜 폴 장학금 혜택 (이중언어 사용 능통한자)

▪ 문의 : 310-598-0746 **최 제이콥 목사**(Sports Missionary Professor)
mr. jacob601@hotmail.com

▪ 주소 : 3128 W. 8th Street., Los Angeles, CA 90005

금주는 왜 필요한가



민종기 목사
충현선교교회

적하고 있는 것이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증거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엡 5:8). 사도는 술 취함과 대조하여 오하려 성령으로 충만함을 요청하고 있다. 교회 지도자는 술과 가까이 하는 사람이 될 수 없다고 말한다(딤후 1:7). 종교적 이유에서 볼 때, 음주의 풍습은 당시의 박카스제, 아데미 숭배 등의 우상숭배 등과 연결되어 있었기에 사도 바울은 술 취하는 것을 금하였다.

한국의 초대교회에서도 술 마심을 처음부터 죄로 규정한 적은 없다. 그러나 가난한 나라가 술을 많이 마시고 윤리적으로 해이해지는 것을 보면서 선교사들은 초대교회에 금주, 금연을 전통으로 정하였다.

1901년 장로교 선교사공의회(현 대한예수교장로회)는 신앙생활 지침서로 만들어 서약하고 세례를 주었다. 지금도 내려오는 7대 강령은 다음과 같다. 첫째는 예배 출석을 철저히 할 것, 둘째는 주일을 잘 지킬 것, 셋째는 부모에게 효도할 것, 넷째는 일부일처를 지킬 것, 다섯째는 자기 가족을 반드시 구원할 것, 여섯째는 근면 성실할 것, 일곱째는 금주 금연할 것이다.

금주는 사회적인 면에서도 매우 필요하다. 아침 출근길, 도시의 골목에서 취객의 토해놓은 음식물을 본 적이 있는가? 흔들리는 몸을 가누지 못하여 친구의 부축을 받는 술에 취한 여성의 안타까운 모습을 본 적이 있는가? 술주정을 하는 아버지 때문에 가슴 졸이던 어린 시절을 체험해 본 적이 있는가? 바바라 톰슨의 “한 잔 술로 죽어간다”라는 책에는 방화와 익사의 80%, 폭력 사건의 60%, 자살의 30%, 차량 사고의 20%가 술 때문에 발생한다고 한다. 과도한 음주는 가정을 파괴할 뿐만 아니라 귀중한 인명을 위협한다. 술 마심이 죄는 아니더라도 성도의 건덕과 화평을 위해 금주함이 유익하지 않겠는가?

화내지 않고 살 수는 없을까?

지구상에서 화를 내지 않고 살 수 있는 곳이 있을까? 우리는 무엇 때문에 화를 제일 많이 낼까? 돈, 직장 일, 인간관계, 자녀들, 자신 때문에 등 여러 종류가 있을 것이다. 주위를 살펴보면 화날 일이 얼마나 많은가? 그런데 화를 내지 않고 살아야겠다고 결심해도 잘 안된다. 그것은 우리 마음을 우리 스스로도 잘 조절할 수 없을 때가 많기 때문이다.

사실 우리가 화나는 상황을 자세히 살펴보면 자기 자신에게 화나는 것을 밖으로 표출하고 있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살면서 기대하는 것이 있다. 그 기대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인내심보다는 화가 난다.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직장 동료들에게, 이웃들에게 나타난다.

그것이 바로 분노이다.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잠15:1)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름을 일으켜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그치게 하느니라”(잠15:18)

그리스도인이자 의사인 맥밀런(S. I. Mcmillen) 박사는 『이런 질병은 물리치자(One of These Diseases)』에서 다음과 같은 말을



정우성 목사
남가주광영교회

했다.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기 시작하면 그 때부터 나는 그의 노예가 되어 버린다. 그가 나의 생각을 지배해 버리기 때문에 나의 일을 제대로 할 수가 없다. 미워하는 마음 때문에 나의 체내에서는 호르몬이 필요 이상으로 분비되어 짧은 시간을 일해도 곧 피로를 느끼게 된다.

내가 늘 하던 일들도 고역으로 느껴지고 즐거워야 할 휴가가 더 이상 즐겁지 않으며 가는 곳마다 내가 미워하는 그 사람이 나를 쫓아오며 괴롭힌다. 이렇게 강력하게 나의 마음을 사로잡는 것을 피할 도리가 없다.

음식점에서 최고급 음식을 먹고 있어도 그것이 그저 빵과 물 정도에

지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진다. 음식을 씹고 삼켜도 내가 미워하는 사람의 모습 때문에 맛을 모르고 먹기가 일쑤다. 물론 그 사람이 내게서 수 마일이나 떨어져 있다 해도 나에게 는 그가 노예 감독 이상으로 잔인한 존재이다. 그리고 그가 나의 생각을 잔혹하게 흔들어 놓기 때문에 부드럽고 폭신한 침대가 마치 고문대처럼 느껴진다.”

어떤가? 분노의 씨앗인 죄로부터 자유하고 싶지 않은가? 누군가 죽이고 싶도록 미워하고 분노하는 마음에서 벗어날 수 있는 해답이 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인생을 행복으로 인도하는 키워드이다. 당신을 예수님의 십자가로 초대한다. 분노로부터 자유함의 열쇠는 예수 그리스도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분노가 사라지고 사랑의 영이 임한다. 주님의 보혈의 능력이 임하면 분노가 사라지고 여유와 겸, 그리고 사랑이 샘솟는 따뜻한 온천이 마음에 생긴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과 함께 평생 행복하게 사는 진정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길 소원한다.

좋은 멘토가 되어 주세요



김세환 목사
LA한인연합감리교회

요즘 들어 많이 사용되고 있는 단어 중 하나가 멘토다. 이 말은 고대 그리스 신화에서 유래된 말이다.

어느날 고대 그리스 이타이가 왕국의 왕인 오디세우스가 트로이 전쟁을 떠나게 되었다. 그 때, 자신의 아들인 텔레마코스를 형제같은 친구 멘토에게 부탁한다.

전쟁터를 향해 언제 다시 돌아오게 될지 모르는 무거운 발걸음을 떠난 오디세우스에게 가장 큰 문제는 어린 아들이었던 것이다. 훗날 자신의 뒤를 이어 나라를 이끌어 가야 했기 때문이다.

따뜻한 아버지의 사랑과 변변한 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한 아들을 두고 전쟁터로 떠나는 오디세우스의 마음은 얼마나 천근만근 무거웠겠는가? 그래서 그는 자신의 부재를 대신 메워줄 수 있는 절친한 친구였던 멘토에게 모든 것을 부탁하고 전쟁터로 향해야만 했다.

10년의 긴 전쟁을 승리로 끝낸 오디세우스가 마침내 고향으로 금의 환향할 때도 여전히 제일 걱정되는 것은 아들 텔레마코스에 대한 안부였다.

그는 아들 텔레마코스가 과연 반듯하게 잘 자라주었는지 아니면 아

지 않았는지. 그대는 “역시 나의 친구 멘토답네!”

그 후에 멘토라는 단어는 한 개인의 이름을 뛰어넘는 존경스러운 후견인을 지칭하는 용어로 발전되었다. 그리고 오늘날 사회 생활에 첫발을 내딛는 풋내기 청년들이 가장 많이 듣는 조언으로 널리 사용하게 되었다.

“성공하려면 훌륭한 멘토를 만나 한다.”

신앙생활도 멋지게 하려면 반드시 좋은 영적 멘토를 만나야 함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기독교의 대표적인 인물인 사도 바울이 탄생하게 된 배후에도 그를 지켜주고 품어준 바나바라는 멘토가 있었다. 또한 암브로스라는 멘토가 없었다면 어거스틴이라는 대표적인 초대 교부도 없었을 것임에 틀림없다. 교회에서도 멘토링이 강한 교회가 좋은 교회다.

훌륭한 인품과 영적인 지식, 그리고 깊은 마음을 함께 나눌 수 있는 따뜻한 멘토가 있는 교회!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간절히 해본다.

비 없이 자란 자식의 티를 내고 있지는 않나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돌아온다.

그러나 아들을 다시 만나는 순간, 오디세우스는 자신이 얼마나 바보같은 걱정을 하고 있었는지 비로소 깨닫게 된다. 아들은 자신과 함께 있을 때보다도 훨씬 더 멋지고 훌륭하게 잘 성장해 가고 있었다.

멘토는 텔레마코스를 자신의 아들처럼 잘 길러 주었던 것이다. 어떤 때는 선생님님이 되어 주었고, 어떤 때는 지혜로운 상담자가 되어 주었다. 그런가하면, 어떤 때는 정다운 친구나 자애로운 아버지 역할을 해 주기도 했던 것이다.

오디세우스는 두 팔을 활짝 펴서 멘토를 끌어안고 찬사의 말을 아끼

콥트교회, IS에 참수된 교인 21명 “순교자로 추서 예정”

그들의 입술에 남아 있던 마지막 말은 “예수 그리스도”였다



IS가 이집트 콥트교회 교인들을 참수하는 영상

이집트 콥트교회 수장인 타와드로스 2세 교황이 콥트력 주현절을 맞아 “IS에 의해 희생된 21명의 교인들을 순교자로 추서할 것”이라고 밝혔다.

타와드로스 2세는 성명을 통해 “그들은 죽음에 임박한 순간에도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외쳤으며, 일부는 마지막 순간에 여호와 의 이름을 크게 부르기도 했다”면서 “IS는 이슬람을 믿지 않는 이들에게 공포심을 심기 위한 의도로 동영상 공개했으나, 콥트 교인들이 보여준 용기는 기독교 신앙을 가진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주었다”면서 이 같이 전했다.

안토니오스 아지즈 미나(Anto-

nios Aziz Mina) 사제는 “그들의 입술에 남아 있던 마지막 말은 ‘예수 그리스도’였다. 마치 초대교회 순교자들과 같이, 곧 자신들을 영접해 줄 한 분께 모든 것을 맡겼다. 마지막까지 불렀던 그 이름은 그들의 순교를 나타내는 징표와 같다”고 했다.

앞서 프란치스코 교황도 이번 사건과 관련해 “기독교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교인들이 살해당했다”며 “우리의 형제 자매들의 피는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들이 가톨릭 교인이든 정교회 교인이든 콥트교 교인이든 개신교 교인이든 아무 상관도 없다. 그들의 피는 동일하게 그리스도를

증거한다”고 말했다.

IS가 지난달 15일 동영상을 통해 참수했다고 주장한 이들은, 지난해 12월과 올해 1월 리비아 시르테 지역에서 납치된 것으로 추정된다.

국제기독교박해감시단체인 ICC(International Christian Concern)는 “참수를 자행한 지하디스트들을 반드시 처벌해야 한다”면서 이번 사건을 강력히 규탄했다. ICC의 토드 데디얼스 중동 지역 담당자는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은 이 같은 행위가 자신들의 종교적 신념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다시금 끔찍한 행위를 저질렀다. ICC는 이집트 정부에 ‘리비아 내에 거주하는 자국민 보호를 위해 즉각적인 조치를 취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집트 정부는 이번 참수 이후 즉각적인 공습으로 IS에 대한 응징에 나서기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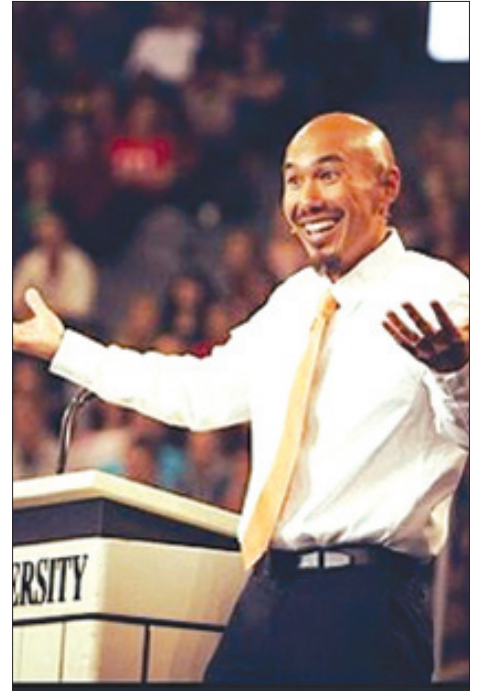
현지 콥트교회 대변인인 하니 바크흠 키로울로스 주교는 “IS의 목표가 우리를 분열시키는 것이라면 그들은 실패했다. 현지 이슬람 지도자들이 강력한 비판 성명을 발표했을 뿐 아니라 이집트 정부가 즉각적인 응징에 나선 것은, 이집트에서 모든 국민은 종교와 관계 없이 동등하다는 것을 보여 준다”고 말했다.

강해진 기자

프랜시스 찬

“왜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나”

시간 ‘당신과 내가 영원히...’ 통해 적극적 신앙 강조



설교하고 있는 프랜시스 찬 목사

뉴욕타임스 선정 베스트셀러 작가이자 유명 강연자인 프랜시스 찬(Francis Chan) 목사가 “교인들이 하나님의 말씀만을 기다리며 너무 많은 시간을 낭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두려움 속에서 시간을 끌며 주저할 것이 아니라, 이미 알고 있는 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데 있어서 보다 적극적이어야 한다는 의미다.

“당신과 내가 영원히: 영원한 빛 안에서의 결혼(You and Me Forever Marriage in Light of Eternity)”이라는 제목의 저서에서 찬 목사는 “미국 내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전까지는 아무 것도 하지 않는 교회 문화가 형성돼 왔다. 우리는 주일예배 때 목회자가 정말 위대한 설교를 전하거나, ‘이것 혹은 저것’이라고 앞으로의 계획을 제시하거나, 우리가 정말로 주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생각하지 않는 이상,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는다.”

결과적으로 주님을 따르는 많은 이들이 주일에만 성경 말씀을 듣고, 나머지 시간에는 이기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꼬집었다.

찬 목사는 “이러한 기독교인들에게서 ‘걸을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음식을 먹느’, 지구상에서 가장 살찐(the fattest) 사람들이 연상된다. 이들은 매주 지식을 더한다. 예배에 참석하고, 소규모 성경공부 모임에도 가입하며, 신앙서적을 읽고, 기독교 방송까지 듣는다. 그러나 여전히 더 많은 말씀이 필요하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찬 목사는 그러나 “말씀을 실생활에 적용할 수 없이 계속 듣기만 한다면,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 무뎠다”면서 “내가 신학교에서 첫 번째로 배운 것은 이것이다. 당시 학장님은 ‘여러분이 일단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된 후, 이에 대한 응답으로 아무 것도 하지 않는다면, 다음에는 말씀을 듣기가 쉬워진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더욱 쉬워진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실제적 반응 없이 듣는 습관과 틀이 형성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찬 목사는 “그렇게 되면 신앙이 매우 위험해진다. 그러나 이 같은 일들은 이미 일어나고 있으며, 전국의

모든 교회에 이러한 형태의 신앙에 빠진 이들이 있다”고 했다.

찬 목사가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제시한 것은 바로 ‘행함’이다. 그는 “왜 행동하지 않는가? 여러분이 성경 말씀을 들을 때, 왜 ‘하나님이 나를 막지 않으신다면, 난 이렇게 응답해야겠다’고 생각하지 않는가”라고 물었다.

찬 목사는 앞서 언급한 저서에서 “일부 기독교인들은 실패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마비됐다. 다른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자신들의 행복을 빼앗는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한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생명으로 이끈다고 기록돼 있다. 많은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데 대한 두려움을 갖는 것은,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고 이에 대한 어떠한 보상도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찬 목사는 “신앙의 다음 단계로 나아갈 필요가 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말씀 하셨다. 진정한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현재의 삶에서든지 또 죽은 이후의 삶에서든지 상급을 주실 것임을 믿는 것이다. 현재의 삶에서든지 아니면 죽은 이후에서든지, 우리에게는 반드시 상급이 있음을 알아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같은 믿음을 가지길 원하신다”고 전했다.

강해진 기자

제54회 케직 컨벤션, 日 하코네에서 개최

“크리스천의 삶은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것”



제54회 케직 컨벤션 성회가 하코네에서 열렸다.

일본에서 반 세기 이상의 역사를 가진 초교과 성회 ‘케직 컨벤션’이 올해로 ‘제54회’를 맞아 2월 24일 하코네에서 개최됐다. 올해 주제는 ‘영혼의 자유와 거룩한 변혁을 간구하며’로, 약 300여명의 교인들과 교

역자가 참석했다. 첫 ‘바이블 리더링’ 시간에는 미국 데이비드 울포드 박사가 ‘예수님의 발 아래서 드리는 예배(눅17:11-19)’라는 제목으로 메시지를 전했다. 그는 “열 명의 문둥병자가 예수

께 깨끗함을 받았다. 여기서 깨끗함을 받았다는 말은 신체적인 병이 치유되는 것만이 아니라 죄의 더러움에서 깨끗함을 받을 때도 사용할 수 있는 말”이라며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신 십자가를 생각하며 얼마나 감사하고 있는가”라고 물었다.

‘성회I’ 시간에는 오스트레일리아 빌 뉴먼 박사가 요 7:37-39, 겔 47:1-12, 계22:1-5을 본문으로 메시지를 전했다.

한편, 성회 전날인 23일에는 일본 케직 컨벤션 도쿄위원회 멤버로서 웨스레안홀리네스 교단 아사쿠사바시 교회 쿠로키 야스노부 목사가 소천하기도 했다.

2월 28일-3월 1일까지는 도쿄 요도바시교회에서 도쿄대회가 개최되기도 했다.

강성현 기자

앞서는 젊은 스타일이 살아있는 곳

마이스타일리스트 미용실

웨스턴+3가에 있는 웨스턴 빌리지 센터로 이전했습니다

헤어 칼라

\$30 up \$10 up

* 단, 칼라만 하시면 \$30.0

매직 스테이트

\$100 up

남자 헤어컷 \$8

매주 목요일에는 남자 헤어컷을 \$8에 해드립니다. 미리 예약하시는 분에만함. * 헤어 칼라 할인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밤 9시까지 영업 (퇴근후 찾아주세요)

편리한 위치- 넓은 지하 주차장 웨스턴+3가 코너

301 S. Western Ave. Suite 110 L.A., CA 90020

영업시간: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9:00 AM ~ 9:00 PM

Tel: 213-739-1022

진리를 알고 행함에 균형잡힌 신앙인 양성이 목표

산호세한인장로교회, 비전라이프 통해 성도 교육



산호세한인장로교회 비전라이프 2015년도 1학기가 지난 8일 개강했다.

한국교계에 제자훈련 바람이 불면서부터 각 교회에 체계적인 성경 훈련 프로그램들이 뿌리내리기 시작했다.

신,구약 파노라마,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로마서, 개인 성경공부 방법, 웨퍼드 라이프, 마더와이즈(Mother-wise) 지혜편, 자유편, 회복편, 파더와이즈(Father-wise), 믿음의 본질, 용서, 단기선교 준비반 등 여느 성경공부 프로그램에서는 배울 수 없었던 성경역사, 교리, 선교 등 폭넓은 내용들이 다뤄지고 있다.

산호세한인장로교회(박석현 목사)도 여느 교회들과 마찬가지로 자체 성경공부 프로그램인 비전라이프를 진행하고 있다.

그렇다고 교육의 초점이 앞에만 치우쳐져 있는 것은 아니다. 교회측 관계자는 진리를 아는 일과 행하는 일에 균형잡힌 신앙인을 양성하는 것이 궁극적 목표라고 했다.

성경을 공부한다는 점에서 여느 성경공부프로그램과 같지만 전문사역자 양성 코스라고 해도 될만큼 높은수준의 내용들을 다뤄 성경공부보다는 성경연구라는 말이 더 맞을듯 하다.

교회측은 비전라이프를 통해 교회내 많은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고 밝혔다. 그 중에서도 선교관련사역에 대한 성도들의 지원이 눈에 띄는 정도이며 교회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1인 1사역 운동 참여율도 크게 증가했다고 한다.

비전라이프는 크게 신앙기초, 성경 및 교리 공부, 일상생활속의 신앙, 경건훈련, 지도자훈련 등 5개 영역으로 분류하고 각 영역에 맞는 과목들을 개설해 교육을 실시해 오고 있다.

뉴비전교회, 순결서약식 거행

교회 고등부학생들, 하나님 앞에 혼전순결 다짐해



'True Love Waits Ceremony' 서약식에 참석한 학생들이 혼전순결을 선행하고 있다.

하나님 앞에 혼전순결을 다짐하는 서약식이 지난 14일 뉴비전교회(이진수 목사)에서 열렸다.

목사는 설교를 통해 신앙인으로써 혼전순결을 왜 지켜야만 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 설명하고 혼전순결을 잘 지켜나갈 것을 당부했다.

'True Love Waits Ceremony'라는 공식명칭으로 열린 이날 서약식에는 교회 고등부 학생 40여명이 하나님과 교회 앞에서 순결을 서약했다.

이날 고등부 담담목회자인 김 제이슨

이웃사랑교회, 손창호 목사 원로목사로 추대

하치호 부목사는 담임으로 위임

이웃사랑교회 손창호 목사가 지난 15일 추대에배를 드리고 원로목사로 추대됐다. 같은날 하치호 부목사는 담임으로 위임됐다.

역을 통해 이웃사랑을 실천해 왔다. 손 창호는 이날로 목회일선에서 내려오지만 원로목사로써 교회를 위해 중보하고 힘이 닿는데까지 돕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웃사랑교회는 손창호 목사가 1988년 10월 20일 상황함미장로교회라는 명칭으로 창립하며 시작했다.

그동안 이웃사랑교회는 노숙인 봉사 등 교회명에 걸맞는 다양한 지역봉사사

교회는 신교회는

A grid of church advertisements for the LA area. Each ad includes a church name, a pastor's photo and name, and a list of service times. Churches listed include Galilee Church, Women's Fellowship Church, Sharing and Blessing Church, Fellowship Church, New Hope Church, Grace Church, and others.

33년 전통의
HEALTH HQ구연산 명가
Since 1982

HQ구연산은 사랑입니다!

HQ구연산은 도매가 이하로 고객 직판을 하기 때문에 건강식품점이나 마켓에서는 구입하실 수 없으므로 타사 유사품에 주의하십시오. 구연산을 드실 때 신맛으로 고민하시는 분은 저희 **미네랄 건강소금**을 함께 타서 드시게 되면 **에너지 드링크**가 되어 건강에도 좋고 먹기에도 편리합니다.

HQ구연산의 효과에 대한 명성은 3백만병 판매 대박 히트상품을 만들어 냈습니다. 첫 출시보다 두 배나 더 되는 양으로 고객님들을 모시다보니 더 이상의 보너스를 드리기에는 많은 부담이 있지만 그래도 **"HQ구연산은 사랑입니다"**라는 슬로건을 만들어 낼 만큼 고객 사랑이 대단했습니다. 그래서 더욱 더 가까이 가겠습니다.
왜냐하면 질병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하여 연구와 실험 그리고 인상을 거쳐 **100% 천연 물질로 각종 암과 난치병, 그리고 아토피와 더불어 면역 결핍**으로 야기되는 각종 질병들을 **예방과 치료**를 할 수 있는 의약품인 **미라팜-22**가 출시되어 또 다른 세상을 만들어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좀 더 성의를 다해 준비했습니다.

당뇨, 고혈압, 변비에 효과가 너무 좋아 더욱 널리 소문난

HQ구연산

국민 건강 식품입니다. 가장 저렴하면서도 가장 탁월한 효능의 구연산!

<p>프로모션 A</p> <p>알파3병 + 오리지널7병 + 소금1병 미네랄 화색 소금(1LB) = \$440 \$100 No Tax</p>	<p>프로모션 B</p> <p>오리지널10병 + 미네랄 화색 소금2봉지(2LB) = \$460 \$100 No Tax</p>	<p>프로모션 C</p> <p>알파6병 + 오리지널2병 + 소금1병 미네랄 화색 소금(1LB) = \$440 \$100 No Tax</p>
--	--	--



한 병은 2-3개월분
Kosher Approved Organic / 8온스(226그램) / 성분: 구연산 100%

HQ구연산은 **매실의 80배, 레몬의 200배** 농도의 100% 유기농 천연 **알칼리 발효식품**
HQ 구연산 효과는 확실합니다!
자신있게 권합니다!

구연산복용체험담

구연산 보급 30년에 각종 체험사례를 모았지만 너무 많아 이곳에 다 적지 못합니다. 구연산을 매일 2-3회 평생 드시면 암, 치매 등 예방하고 병원, 약값이 절약됩니다.

자도자도 피곤, 만성피로는 만병의 근원
당뇨 / 고혈압 / 만성피로 100% 환율 보장

노벨상을 3회씩이나 수상한 경이로운 식품

- **바르다넨 박사** (핀란드 1945)
구연산이 "구연산 사이클"의 열쇠가 되는 (오기자로 초산)이 되어 인체의 피로를 제거해 준다.
- **크레브스 박사** (영국 1953)
구연산이 인체 내 피로물질인 젖산을 빨리 분해하고 축적을 막아 피로회복과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해주어 피로회복과 노화를 방지한다는 구연산 크레브스 사이클 이론으로 노벨 생리 의학상을 받았다.
- **브르크 박사, 린넨 박사** (미국, 서독 1964 공동수상)
구연산은 체내에서 모든 영양물질을 완전 소화 흡수하여 인체내의 자연치유력을 최대로 하여 준다.

노벨상 홈페이지(www.nobelprize.org)를 방문해 검색란에서 Citric Acid를 검색해 보시면 금방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연산은 약이 아니고 식품이면서 인체에 다음과 같은 도움을 준다.

- ◇ 구연산은 섭취하면 크레브스사이클의 출발물질이 되어 신진대사가 원활하여짐과 동시에 인체 피로물질을 신속히 배출하고 혈액을 맑게 하여 순환을 도와 2시간 내에 피로한 기색이 사라지게 한다.
- ◇ 구연산은 입맛을 당기게 할 뿐 아니라 식품에 붙은 세균을 살균시켜 소화불량, 위장병을 없애주며 장내의 활동이 원활해지고 장벽을 깨끗이 청소해줌으로 변비를 없애준다.
- ◇ 구연산 속의 변환효소는 혈관의 수축작용에 관계하여 혈압을 모두 낮춰주는데 획기적이다.
- ◇ 구연산은 체내 세포 내의 혈액을 산성화시키고 근육을 굳게 하는 독극물인 젖산(유산)과 초성포도산(필핀산)을 태워 없애주면서 당을 조절하여 당뇨병을 호전시킨다.
- ◇ 구연산은 간장에 해로운 중성지방이 쌓이는 것을 막고 독소를 분해시켜 간장을 보호하며 간 기능의 부담을 없애준다. 또한 지방간이나 고콜레스테롤에서 해방되도록 해 준다.
- ◇ 구연산은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술독과 담배로 인한 일산화탄소를 분해시켜 부부생활이 즐거워진다.
- ◇ 구연산은 정혈과 살균작용이 뛰어나므로 나쁜 피를 맑게 정화시켜 체외로 배출하는 역할을 한다.
- ◇ 구연산은 피부와 혈액순환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알러지와 가려움증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
- ◇ 구연산은 발암물질인 과산화지질을 억제하고 세포의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만들어 기미의 원인인 멜라닌 색소를 배출시켜 버린다.
- ◇ 구연산은 젖산을 분해시켜 근육을 유연하게 할 뿐 아니라 통증을 없애는 부신피로몬을 분비시켜 요통, 어깨결림, 오십견을 없애준다. 또한 심한 운동으로 인한 인대가 늘어나거나 허리 통증을 없애준다.
- ◇ 구연산은 세포가 노화되어 동맥경화증, 고혈압, 간장병, 류머티즘 등과 같은 성인병의 유발과 노화의 원인인 유산을 분해시켜 피로를 없애주며, 산성화 된 인체를 알칼리성으로 개선하여 준다.
- ◇ 혈액을 알칼리성으로 유지하는, 즉 혈액을 맑게 하는 작용이 있으므로 자연히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해주므로 신체의 모든 기능을 정상적으로 활동하게 한다.
- ◇ 만성신장병으로 신장의 기능이 저하, 부종, 고혈압, 전해질이상, 빈혈 등의 증상이 나타나고 그 정도가 심해 요독증에 이를 경우 신장의 기능을 최대로 증진시켜 노폐물이 쌓이지 않도록 도와준다.
- ◇ 좌골신경통, 요통 등의 통증을 완화해 주는데, 이는 알칼리성 체질개선이 되기 때문이며, 맑은 혈액으로 혈액순환을 좋게 하여 자연 치유력이 최대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 ◇ 숙취에 효과적이며 간기능을 강화시킨다. 또한 산성혈액을 정화하여 항체체질로 바꾸는 작용을 한다.

- ★늘 피곤하던 몸이 가뿐해지면서 삶의 활력이 넘쳐 좋았다.
- ★간질환을 앓고 있다가 구연산 덕분에 완전히 회복되었다.
- ★당뇨가 심했는데 복용 3일 후 똑똑 떨어져 당약을 조절함.
- ★혈압 200이 넘음. 복용 후 120정도. 이제는 혈압약 안먹음.
- ★누나의 소개로... 지금은 보청기를 끼지 않아도 잘 들린다.
- ★신장염으로 온몸이 통통 부어 올랐는데 구연산이 낮게했다.
- ★여드름에 구연산 마사지를 해주니 맥 못 추는 것을 알았다.
- ★손, 발바닥 무좀을 구연산에 담갔더니 점점 회복이 되었다.
- ★방광에 대한 자각증상이 있었는데 장복 후 사라져 버렸다.
- ★대상포진으로 가려워 죽을 지경이었는데 먹고 바로니 나아.
- ★비염, 콧물 및 피부 알러지가 완전히 가셔져 계속 복용중임.
- ★7년간 피부암이었는데 3주 동안 먹는 것만으로도 치료됨.
- ★아토피를 앓았는데 구연산 물을 먹고 바로면서 나아졌다.
- ★온몸에 진물을 동반한 두드러기와 가려움증이 사라졌다.
- ★나는 당뇨와 17가지 합병증으로 자살을 3번 시도했다. 그러나 구연산 복용 후 2주 만에 완전 정상. 후에 목사 됨.
- ★린스처럼 사용했더니 탈모가 중지되고 가려움증이 없어졌다.
- ★요리할 때 식초 대신에 사용하면 훨씬 맛이 있고 좋음.
- ★당뇨로 잃은 왼쪽 눈, 두 달 만에 시력을 완전히 되찾았다.
- ★외출 시에 벌레물린 곳, 몸의 상처를 구연산으로 해결했다.
- ★가장상비약처럼 두고 항상 구연산부터 찾는 습관이 생겼다.
- ★전 농림부장관 30년 다른 약은 일체 끊고 구연산만 복용. 피검사 후 혈액이 20대 같음. 얼굴에 검버섯, 기미 사라짐. 79세인데 장기 복용하니 두뇌가 청년시절처럼 되돌아옴
- ★파킨슨병으로 고생하다가 구연산 두 달 먹고 테니스도 친다.
- ★통갈비, 잔갈비를 구연산에 재니 핏물이 빠지고 맛도 좋음.
- ★나물을 무칠 때 식초 대신 사용하면 훨씬 맛이 있고 좋음.
- ★밥을 할 때나 국을 끓일 때 구연산을 첨가하면 맛이 좋음.
- ★공부하는 아이에게 줬더니 졸지도 않고 집중이 훨씬 잘됨.
- ★운전할 때 구연산 물을 마시면 졸리지도 않고 피곤치 않음.
- ★눈이 침침할 때 구연산을 찍어 바르면 눈이 점점 맑아졌음.
- ★허가 심하게 갈라져 약을 먹어도 안되는데 구연산이 해결함
- ★위장병으로 속이 무척 쓰렸는데 구연산을 복용하고 나아짐.
- ★50년된 만성변비가 구연산 3일 복용 후 정상 변을 보게 됨.
- ★오십견으로 고통이 심했는데 1주일 후 통증이 거의 없어짐.
- ★구연산 복용 45일 후 42인치 허리가 36인치로 줄어들었음.
- ★만성 아토피와 간염이 구연산 1년 복용 후 완전히 사라졌음.
- ★구연산 복용 후에 피부가 너무 좋아지고 얼굴색이 젊어졌음.
- ★양손가락이 완전히 오그라들었는데 6개월 후 완전히 펴졌음.
- ★다리가 저리고 걸을 수가 없었는데 보를 후 증상이 사라짐.
- ★유방암이 구연산만 장기 복용 후 완전히 사라짐. 목사 사도.
- ★10년간 사타구니의 피부암으로 고생하다가 점차 회복되어감.
- ★쌀이나 야채나 과일을 씻을 때 구연산으로 행구면 농약 끝.
- ★만성피로와 간장질환을 구연산을 먹고 지방간도 낫고 회복.
- ★30년된 부정맥이 구연산 복용 후 3일만에 정상맥박으로 됨.
- ★눈수술 후 안압이 잡히질 않았는데 45일만에 정상이 되었다.

이부경박사는 왜?

의사들의 검진결과에 대한 처방전을 구연산만으로 내려도 괜찮을 것이라고 하였다.
이렇게 만병 통치에 가까운 구연산을 왜 의사나 약사들이 권하지 않고 있었을까? 의과대학이나 약학대학에서 구연산을 가르치지 않고 있으니 알 리가 없고 안다고 해도 값싼 구연산으로 병을 고치려고 처방해 준다면 돈벌이도 안되어 병원 간판을 다 뜯어내려야 할 판국이니 누가 그 같은 짓을 한단 말인가? 때로는 내 자신도 이런 신비의 효능의 구연산을 혼자만 알고 건강을 지탱하면 될 터인데 무엇 때문에 의학계의 눈총을 받아가며 목을 먹는 꼴까 생각해 본다. 건강은 행복의 원천이니 누구나 건강을 스스로 지켜야 한다. 그런 면에서 구연산은 실질적인 건강의 파수꾼이라 할 만하다. 나는 구연산을 복용한 지 이제 막 20년째 들어서고 있다. 아마도 우리나라에서는 구연산의 최장기 복용 기록 보유자가 될 것도 같고 구연산의 신비성에 대하여 나만큼 느끼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도 드물 것 같다. 그러나 애독자들에게만 건강을 선사해 드리지 않을 수 없어 이 글을 써 보낸다.

- 이부경박사 현, 건강과학연구원장, 청주교육대학 대우 교수,
[주요 저서]: <노벨상감의 건강박사>(당뇨병 치료법)의 다수,
[상훈]: 녹조근정훈장, 철탑산업훈장, 녹조근정포장 등 수여



안전한 인터넷 홈쇼핑 www.KBSmall.com

HQ헬스 / HQ산삼 / HQ 바이오텍

LA 본점 : 833 S. Western Ave. #1 LA, CA 90005
세리토스직영점: 12224 South Street Artesia, CA 90701

L. A. 본 점 (213)365-2100
세리토스 직영점 (562)760-2359

월-금: 10am-7pm, 토:10am-5pm



12224 South Street Artesia, CA
세리토스 직영점

차세대 지도자 7인의 목양 이야기를 한 자리에서



OC교협 임원들이 이 목양콘서트를 소개하고자 본사를 방문했다. (좌측부터) 서기 박재만 목사, 회장 김기동 목사, 평신도 부회장 윤우경 집사.

대표적인 차세대 지도자 7인이 오렌지카운티에서 OC교협 주최로 7인 7색 목양콘서트를 개최한다. 이 행사는 오는 3월 12일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은혜한 인교회에서 “목회자의 자기 정체성과 건강한 이민목회”란 주제 아래 열린다.

교회 이찬규 목사 등 독일 이민교회 목회자 등 다양하다. 개최예배에서는 OC교협 회장 김기동 목사가 주제강연을 전한다.

김기동 목사는 이 목양콘서트에 관해 “무엇보다도 목회자의 자기 정체성 확립에 대한 강이가 이뤄질 것이다. 기본과 초심으로 돌아가 건강한 목회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자”고

강조했다. 서기 박재만 목사는 “우리는 자꾸 목회 환경이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 하지만 사실 목회는 방법론보다는 사람에 대한 것이다. 그런 점에서 이번 세미나는 목회자들이 목회의 본질을 깨닫게 될 기회”라고 설명했다.

또 김 목사는 “이민 목회자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를 드리고 건강한 목회의 답을 드리고 싶다”고 덧붙였다.

이 행사는 목회자, 사모, 신학생 등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페이스북 페이지 OC기독교교회협의회나 전화 714-321-1891, 213-255-0296으로 등록할 수 있다. 등록비는 식사와 교재비 포함 30달러이지만 주최측은 선착순 200명에 한해 등록비 전액을 후원한다.

김준형 기자

남가주연목회장에 고재원 목사 취임



연목회 회장에 고재원 목사(사진 앞줄 중앙)가 취임했다.

남가주연목회 회장에 고재원 목사(은혜가슴솥는교회)가 취임했다. 지난 2월 26일 한미장로교회에서 열린 이취임식은 정요한 목사의 사회로 시작돼 지용덕 목사가 기도하고 이종렬 목사가 성경봉독한 후 김숙영 사모가 특송했다. 이운영 목사는 “그리스도인의 가치관”이란 제목으로 설교했다. 류기종 목사의 헌

금기도에 이어 류재덕 전 회장이 이 임사를, 고재원 신임회장이 취임사를 전했다. 김정복 목사, 김정환 연 열린 이취임식은 정요한 목사의 사회로 시작돼 지용덕 목사가 기도하고 이종렬 목사가 성경봉독한 후 김숙영 사모가 특송했다. 이운영 목사는 “그리스도인의 가치관”이란 제목으로 설교했다. 류기종 목사의 헌

간통죄 폐지, 교회의 책임 더 커져

살롬나비, '헌법재판소 간통죄 폐지' 관련 논평

살롬을꿈꾸는나비행동(살롬나비·상임대표 김영한 박사)은 3일 헌법재판소의 간통죄 폐지 결정에 대한 논평을 내고 “이번 간통죄 폐지 주장의 근거의 핵심은 ‘성적(性的) 자기 결정권은 국가가 간여할 일이 아니다.’라는 것이다. ‘국가가 개인의 사적 영역을 함부로 간섭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은 자유민주주의 원리에 타당하다”며 그러나 “국가는 혼인제도와 건전한 성도덕을 확립할 책임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이를 위해서 성적 자기결정권을 제한하는 것은 헌법의 자유의 정신을 위협하는 것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김영한박사 살롬나비 회장, 기독교학술원장

의 사문화되었다는 견해를 반영한다”며 그 이유에 대해 “가정보호라는 본래 취지와 달리 화해의 기회를 박탈해 가정을 해체하는 수단으로 변하는 경우도 많았던 것이 사실이다. 그리고 간통죄로 처벌받을 경우 법원이 위자료를 낮게 책정해 정작 피해자가 경제적 불이익을 받는 모순이 허다했다고 한다”고 했다.

또한 “국가는 불륜으로 가정을 해체시킨 가해자에게 형사적 처벌을 능가하는 민사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입법부는 그동안 손해배상액 인정에 대해 매우 소극적이었던 법원 판단에 법적 근거를 제공해 주어야 한다. 그것이 입법부의 몫이다. 사법부는 법의 한도 내에서 최대한의 강제력을 발휘해야 한다. 이를 위해 크리스천 국회의원들과 법조인들의 분발을 촉구한다”고 요청했다.

또한 “개인 사생활에 대한 국가의 책임이 줄어드는 시민사회에서 교회의 책임은 더 커지고 있다. 이번 현재의 결정에서 보여주듯이 시대의 흐름은 성적인 자기결정권의 이

름으로 성도덕을 폐기하고 있고 이로써 가정의 토대를 무너뜨리고 있고 이런 흐름에 그리스도인들도 이에 크게 영향을 받고 있다”며 “교회는 혼인의 순결, 혼인의 의무를 설교하고 가르치고 성적인 순결이 개인과 가정의 행복의 기초임을 보여 주어야 한다. 그리고 교회는 가정사역을 교회의 중요한 사역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부부 관계 회복을 위한 행복학교에서부터 갱년기 세미나, 웰빙 스쿨, 부모 자녀 관계 세미나 등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가정을 돌보고 살리는 일이야말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목회적 돌봄이라 할 수 있다. 가족 중심의 치유와 회복이 있는 목회를 주문한다”고 했다.

살롬나비는 “이제 개인의 성도덕과 사회의 성윤리의 질서를 견고하게 세울 책임이 기독교에 주어지고 있다. 기독교는 개인의 자유를 존중하면서 사회의 건강성을 세우는 윤리의 토대로서 사랑의 법을 가지고 있다”며 “시대가 험해질수록 기독교의 가치는 더 큰 힘을 발휘한다. 성도덕의 문란과 범의식의 변화로 위협받는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기독교는 한국사회에 건강한 가정문화의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국기독교가 금주금연 운동이 사회에 커다란 획을 그을 때가 있었다”며 “이제는 ‘더욱 고결하고 성숙한 기독교 가정문화를 만들어내는 일이 곧 선교적 과제가 된다’고 덧붙였다.

주님의 공훈은 여전히 “고아와 과부, 나그네에게로”



김광열 교수

예장 합동(총회장 백남선 목사) 제99회기 총회전도정책포럼이 ‘작은 자와 함께하는 희망교회’를 주제로 3일 서울 상도제일교회에서 열렸다. 이날 포럼에서 김광열 교수는 ‘작은 자에 대한 교회의 사명-총체적 복음의 관점에서’의 제목으로 발표했다.

김 교수는 “주님이 베푸신 구원이 총체적 구원이라면, 그 구원의 메시지를 담고 있는 복음도 총체적 복음이라고 해야 하는 것”이라며 “주님의 복음은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능력만 아니라 그 복음의 능력 안에서 육체적 질병도 회복되며, 공동체의 아픔도, 사회적 죄의 그림자들도 회복의 은총을 입게 되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초대교회는 자신의 교회 안에서 나눔을 실천하는 것에 머물지 않고, 지역의 연약한 타교회에까지 나눔을 실천하는 모습으로 성장해 갔다”며 “사도 바울은 선교여행을 멈추면서까지 기근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예루살렘교회를 위해 고린도교회 성도들에게 재정적인 나눔을 독려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그는 “교회와 그리스도인의 사랑의 실천을 언약 공동체 밖의 작은 자들에게까지 펼쳐야 함을 구약의 가르침들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다”며 “가난한 자들을 배려하시는 하나님의 구제적인 사랑의 관심은 십일조와 안식년, 희년제도 및 추수자 구제 등과 같은 이스라엘을 위해 제정하신 구약의 여러 제도들 속에서 분명히 제시되고 있기 때문”

이라고 역설했다. 또 다른 발제자로 나선 박종걸 목사(경성교회 담임)는 ‘가난한 자들과 함께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발표했다.

박 목사는 “경성교회는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는 생각으로 교회 재정의 50% 이상을 이웃 사랑을 위해 나누려고 애쓰고 있다”며 “경성교회 가족들에게는 구제가 이론이 아니다. 구제비는 구제 현금 외에 십일조의 10분의 1을 구제비로 사용하고 있다”고 교회를 소개했다.

“경성교회는 설립 시부터 바울 사도가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 생각하는 것을 부탁하였으니 이것을 나도 본래 힘써 행하노라’(갈 2:10)는 말씀을 기억했다”며 “선교와 구제는 분리할 수 없는 일이었기에, 하나님께서 경성 가족들을 통해 주신 귀한 물질들을 이 땅의 고아와 과부, 나그네를 위해 사용해야 하는 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적어도 경성교회의 입장에서 본질적 문제였다”고 했다.

TOGO & 캐더링 환영

미글러 싸갈러

연말연시 동창회 및 단체모임, 교회행사, 가족모임
 캐더링 전문
 정성껏 맛있게 준비했습니다.
 자신있게 권합니다.

323.660.1004 (천사)
213-598-5552

4429 W. BEVERLY BLVD.
 LA CA 90004

주일은 쉽니다.
 타운내 신속배달 (2인분 이상)

Dealer No. 62655



중고차 황제
김기형
 213-747-5900
 714-743-1000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막 9 장 23 절

\$중고차 고가매입\$

“기본 **\$700 더** 드리는 혜밀리자동차”

새차 리스, 중고차 매매

전차종 All Makes & Models
 HONDA, TOYOTA, LEXUS, BMW, MBZ
 고급차, 유럽차, 일제차, 경매장 안내해 드림



www.familyauto.us

중고차를 판매하시면 새차는 원가에 뽑아드립니다.



213-453-5900
714-743-1000

933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06

복새통

책으로 통하는 새로운 세상



신간추천

강자와 약자

폴 투르니에 | IVP | 388쪽

‘강자의 불안’과 ‘약자의 절망’ 이면에 존재하는 인간의 동일한 본성을 지적하면서, 심리 분석적 통찰과 풍부한 임상 경험을 통해 강하고 약한 모든 부정적 반응에서 자유로워지는 새로운 길을 제시한다. 20세기 최고의 상담가인 저자의 대표작 중 하나로, 그 비극적인 돌을 넘어서는 길로 인간 문제에 새로운 차원을 제시하고 인간 본성을 변화시키는, ‘영적인 힘으로 사는 삶’을 제시한다.



군 입대 아들을 위한 부모기도문

김형기 | 아가페북스 | 176쪽

최근 병영 내 각종 사건으로 군에 대한 염려와 불안이 팽배해 있다. 위험한 무기를 다루고 힘든 훈련을 하는 만큼, 부모형제와 지인들의 강력한 기도가 필요하다. 책은 군에 입대하는 자녀와 형제,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공동체를 위한 기도문이다. 신병교육 순서에 맞춰 구성해, 자녀의 군생활을 위해 하나님께 더 구체적인 기도를 드릴 수 있다. 군인 본인도 전우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다.



민지 않는 남편의 아내들에게

조 베리 | 생명의말씀사 | 240쪽

그리스도인 아내가 당할 수 있는 어려운 상황 중 하나는, 민지 않는 남자와 결혼한 경우다. 많은 아내가 남편의 구원 문제에 대해 혼란을 겪거나 포기한다. 그러나 저자는 ‘희망이 있다’고 말한다. 아내들이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남편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는 아내들에게 포기하지 않고 남편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지혜의 길을 제시한다.



죽을만큼 기도하라

찰스 피니 | 브니엘 | 248쪽

저자는 회심 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변화된 삶을 위한 성화의 비밀을 가르쳤고, 자신도 하나님의 온전한 임재 가운데 거하는 삶을 살았다. 그는 기도란 하나님이 어쩔 수 없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을 설복시켜야 한다고 말한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어떤 기도에 설복하시는지, 왜 설복하시는지, 그리고 어떻게 응답하시는지 분명히 이해해야 한다. 개정판이다.



REVIEW

신앙적 관점에서 “좋은 죽음” 맞도록 훈련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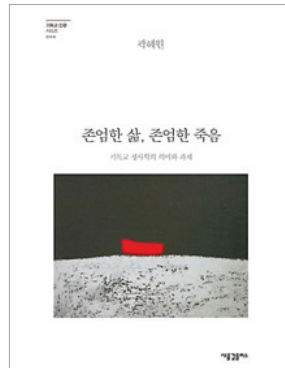
죽음 성찰 통해 발견하는 삶의 궁극적 의미

“특히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죽음을 성찰하는 일이 중요한 이유는, 죽음의 문제를 도외시키고서는 우리 삶이 설명될 수 없기 때문이다. ... 죽음을 통해 삶을 바라보지 않으면, 삶의 궁극적인 의미를 발견하지 못할 수도 있다. 따라서 우리 우리는 매사에 죽음을 염두에 두고 살아가야 한다.”

〈존엄한 삶, 존엄한 죽음〉은 죽음에 대한 물이해와 성숙한 죽음 의식의 결여, 죽음·생사 교육 부재의 우리 사회에 대한 문제의식 속에서, 삶과 죽음에 관해 연구하는 ‘기독교 생사학’ 정립 목적으로 쓰여졌다.

책은 ‘메멘토 모리’를 시작으로, 성서의 생명 이해와 죽음을 넘어서는 기독교의 희망, 여러 종교들의 생사관, 여러 종류의 ‘죽음’ 등 다양한 논의를 전개하고 있다. 특히 뇌사와 안락사·존엄사, 호스피스 케어와 고통 완화 의료, 고독사·무연사, 자살 등 기독교 윤리와 관련된 문제를 다루고 있으며, 부록에서는 〈죽음이란 무엇인가〉를 쓴 셸리 케이건의 ‘사후 세계도, 영혼도 없다’는 식의 죽음 이해를 기독교적 시각으로 반박하고 있다.

‘생명’을 창조하신 하나님부터 ‘부활’하신 예수님, ‘살리는 영’이신 성



존엄한 삶, 존엄한 죽음
곽혜원 | 새물결플러스 | 504쪽

령님까지, 성경은 ‘생명’에 대한 강한 긍정을 바탕으로 한다. 그래서

‘죽음’은 ‘극복의 대상’이었고, 한국 교회도 ‘죽음’을 금기시하기도 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죽음은 더 이상 끝이 아닌 ‘영원한 생명’의 통로가 됐다.

“좋은 신앙인으로 ‘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신앙적으로 ‘잘 죽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다.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평소에 죽음을 신앙의 관점에서 분명히 정리하고 좋은 죽음을 맞이하는 훈련을 해야 한다.” 그 구체적인 방법은 ‘아르스 모리엔디’의 회복이며, 이러한 관점에서 생애 말기 적극적 연명치료에 대한 재고 가능성을 지적한다.

“인간은 인생에 정해진 한계점이 있다는 사실을 담담히 받아들일 때 비로소 균형과 조화를 이룰 수 있게 된다. ...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에게 죽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은 유익한 섭리 가운데 있는 것이다.” ‘희망의 신학’을 주창한 위르겐 몰트만 박사(J. Moltmann) 지도로 독일 튀빙겐대학교에서 조직신학 박사 학위를 받은 저자는 성공회대와 숭실대, 연세대 대학원, 장신대 등에서 신학을 가르쳤고, 지금은 ‘21세기 교회와 신학포럼’ 대표로 있다.

이대웅 기자

성화 특별 기획전

크리스천이라면 가정에서 하나쯤은 꼭 소장하고 싶은 '최후의 만찬'과 예수님 성화를 특별 할인판매 합니다.
교회 임직자들 선물용으로, 교회에 하나쯤은 꼭 비치하면 좋습니다.



성화특별기획전

- 36×18 - \$ 200
- 19×25 - \$ 150
- 27×19 - \$ 200
- 8×12 - \$ 70
- 6×8 - \$ 40

가까운 기독교 서점에 문의하세요
문의 기독교일보 T) 213-434-1170

청년·청소년 사역 분야 베스트셀러 “Pray 21”

“삼일운동의 정신과 철학” 기독교 신앙이 깊이 관여해

“여러분은 선교와 사역이라는 중대한 사명을 위해 창조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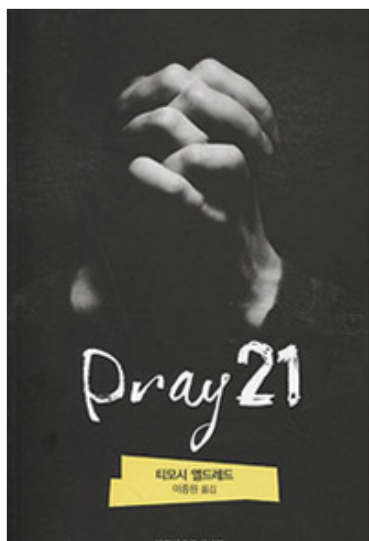
저자 박재순 선생, ‘한국 교회와 사회가 사는 길’ 로 제시

청년·청소년 사역 분야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Pray 21」이 한국복음주의연구소에서 출간됐다.

「Pray 21」은 북미 지역 교회 및 선교회 등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됐으며, 전 세계에서 번역본 출간이 이어지고 있다. 책은 ‘신앙함(Believe)’, ‘소속감(Belong)’, ‘되어감(Become)’, ‘존재함(Be)’ 등 4부(4B)로, 총 3주(21일)간 개인 또는 소그룹에서 사용할 수 있는 교제 형태로 구성돼 있다. 별도로 7일만마다 ‘주 차별 체크포인트’를 설정하고 ‘복습’과 ‘적용’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매일 입을 양이 많지 않고, 가격도 저렴해 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다.

매일의 내용은 ‘도입-말씀-묵상-기도’의 순서를 거친다. 이를 통해 머릿속으로만 생각하던 말씀을, 묵상과 기도를 통해 실제 삶에서 떠올리며 적용하고 결단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이를 통해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실천적인 삶을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 제자들의 ‘국제적 운동’을 펼쳐 나가고자 한다.

저자는 “성장은 좋은 질문에서부터 시작되나, 질문에 답변을 얻지 못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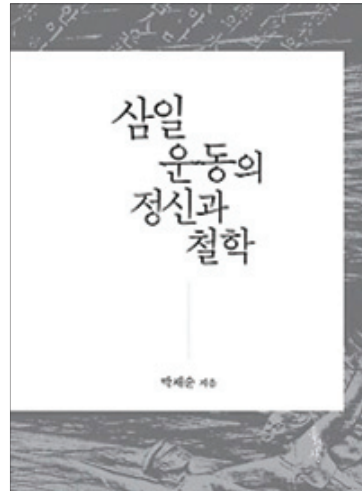
Pray 21
티모시 엘드레드 | 한국복음주의연구소
69쪽

할 때 성장이 정체될 수 있다”며 “책이 주는 21일간의 도전을 받아들이면 몇 가지 어려운 질문을 만날지 모르지만, 수년을 허송세월하기 전이 질문에 대면해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절대적 확신을 가지라”고 조언하고 있다.

저자 티모시 엘드레드 박사

(Timothy Eldred)는 북미 저명 청년단체 ‘Endeavor Ministries International’ 대표를 맡고 있으며, 국제청년사역 전문가이자 선교 전략가, 설교가, 저술가, 멘토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다. 미트리니티신학교(Trinity Seminary)에서 목회학 석사와 조직관리 및 리더십 개발 전공으로 박사 학위(Ph.D.)를 취득했으며, 대표 저서로 「4-Hour Youth Ministry」가 있다. 20년 이상 다음 세대 사역을 이어온 엘드레드 박사는 미국 미시간주 뉴비기닝즈(New Beginnings) 교회 담임목사이기도 하다.

저자는 “여러분은 선교와 사역이라는 중대한 사명을 위해 창조됐기 때문에, 무의미하게 사는 것은 선택 사항에서 제외돼야 한다”며 “21일간 질문을 하는 사람들, 회피하는 사람들, 의식하지 못하는 사람들, 발견하고 있는 사람들, 무의미한 삶을 넘어서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읽어 가면서, 자신의 정체성을 발견하고 마음 속에 하나님을 모시어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을 발견하고 응답하라”고 도전했다. 이대웅 기자



삼일운동의 정신과 철학
박재순 | 홍성사 | 240쪽

《삼일운동의 정신과 철학》저자인 박재순 선생은 “삼일운동 100주년을 내다보면서, 한국 교회와 사회가 삼일운동의 정신과 철학을 회복하고 실천해야 한다”며 “그것이 한국의 정치와 경제, 문화와 교육, 종교가 살 수 있는 길이라 생각하고, 그래서 이 책을 썼다”고 밝혔다.

박재순 선생은 삼일운동의 주도 세력에 대해 “천도교와 기독교가 합작해서 일어났다는 것은 객관적 사실”이라며 “천도교가 준비 과정이나 자금 등을 주도한 건 사실이나, 기독교는 천도교인들의 1/10도 안 되는 수입에도 학교와 교회, YMCA 등 조직적이고 전국적인 네트워크를 통해 매우 효과적으로 활동했고, 철저하게 앞장서 행동했다”고 밝혔다. 그는 “실제로 당시 일본 경찰이나 군대에 구속된 비율도 기독교와 천도교가 5대 4 정도였던 점에서, 기독교는 천도교 못지 않게 삼일운동에 중심 역할을 했다”고 평가했다.

또 “책에 나왔듯 이승훈이나 유관순, 안창호 선생 등은 민족 지도자들이면서도, 기독교 신앙이 매우 숭고할 뿐 아니라 심오하고 아름다운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이들을 강조한 것은 삼일운동의 정신적 배경으로 기독교 정신이 깊고 확고했음을 알리기 위함이나, 이는 기독교적 ‘당파심’에서만은 아니다”고 했다.

그는 “이 책은 기독교인들만을 위해 쓴 게 아니라, 말 그대로 헌법 전문에 나와있듯 대한민국의 정신과 철학으로서 삼일운동의 그것을 보여주려 했다”면서도 “그러나 이러한 대한민국을 형성한 삼일운동의 정신과 철학에는, 기독교 신앙의 정신도 매우 깊이 있게 관여하고 있

음도 드러내려 했다”고 설명했다.

“천도교인 수는 해방 후 현저히 감소하고 기독교인 수는 유례없이 증가했는데, 이는 기독교가 삼일정신을 잘 계승했다고 봐도 되는가”라는 질문에 박 선생은 “꼭 그렇다고 생각하진 않는다”고 했다. 해방 후 한국 사회의 변화 과정에서, 기독교는 미 군정과 이승만 정권 이후 형성된 사회의 흐름에 잘 부합했지만 천도교는 그렇지 못했다는 것. 그는 “천도교에도 종교적 영성과 깊이가 있었다고 보지만, 신흥종교로서 종교적 깊이와 영성을 심화시키고 실천하기보다 정치적 관심이 좀 더 앞서지 않았나 한다”고 했다.

박 선생은 “당장에는 정치적 관심과 실천이 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세월이 지나면 (그것 때문에) 종교적 역동성과 활력을 잃고 오그라들 수 있다”며 “기독교는 여러 약점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에 근거한 신앙이 2천년간 힘 있게 이어져 왔다”고 전했다. 지금의 한국교회에 대해선 “안창호·이승훈·유관순 또는 김교신·김재준·윤동주·이용도 같은, 한국 근현대사에서 기독교 신앙의 깊이와 순수함을 철저히 드러냈을 뿐 아니라 누구보다 정신과 인격이 빛났던 영성의 보물들을 외면 또는 계승하지 못한 상황”이라며 “그래서 한국 기독교는 지금 급격히 쇠퇴하고 있고, 앞으로도 어렵지 않을까”라고 전망했다.

박재순 선생은 “삼일정신을 이어받지 못한 것은 한국교회 뿐 아니라 사회도 마찬가지이다. 삼일운동에 대한 관심이 일시적으로 끝나지 않고, 지속적인 캠페인과 실천으로 이어질 바란다”며 “바라기는 이 책이 널리 읽혀 삼일운동 100주년을 준비하는 데 기여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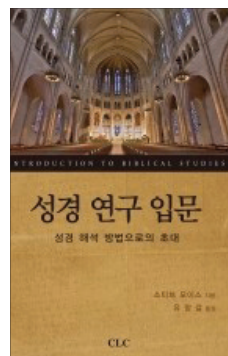
이대웅 기자



저자 박재순

스티브 모이스의 “성경 연구 입문”

복음주의적 입장에서 성경 해석에 대한 다양한 접근법 소개



성경 연구 입문
스티브 모이스 저 | 유창걸 역
기독교문서선교회 | 288쪽

스티브 모이스 박사의 이 책은 성경 비평학 분야에 새롭게 입문하는 학도들을 위하여 저술된 책으로, 이 책은 넓은 복음주의적 입장에서 성경 해석에 대한 다양한 접근법을 소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모이스 박사는 다양한 비평학적 해석들을 이론적으로 소개하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기 쉽도록 풍부한 성경의 예를 통하여 실제 해석에 어떤 차이를 가져오는지 보여 준다. 이렇게 함으로써 비평학을 소개하는 많은 책들이 사변적인 이론

의 소개에 그치는 단점을 극복하고 있다.

또한 모이스 박사는 각각의 방법론이 항상 서로 상존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각의 방법론은 긍정적인 의미에서 무엇인가 공헌하고 있다 본다.

모이스 박사는 다양한 비평적인 해석방법을 소개한 후 마지막에는 전통적인 신학적 해석 방법론을 소개해 전통적인 해석방법론 속에서 균형 잡히게 비평방법론을 볼 수 있게 하고 있다.

이에 이 책은 성경 비평학에 입문하는 사람이 성경 비평학의 핵심 주제들을 넓은 조망을 가지고 파악하기에 용이하다.

한편 번역은 웨스트민스터신학대학원 구약학 특임교수 유창걸 교수가 맡았다.

오상아 기자

최첨단 3D 전신 스캔 검사

다나병원의 3D 전신 스캔 종합검사는 신체내 투입이나 통증없이 신속,정확하며 과학적인 방법으로 뇌, 심장, 혈관, 간, 위, 척추등 전신의 건강 상태 뿐만 아니라 위험 요소들을 미리 측정하여 예방도 가능하게 하는, 일찍이 경험하지 못한 전신기능의 검사를 합니다.

유전자 생약치료 200여개의 유전자를 분석하여 질병위험과 전반적인 건강상태 상담, BAM(bio active molecule; 생리활성물질)로 치료를 합니다.

다나병원 다나병원은 Well-Being과 Aging Care를 목표로 통합의학을 지향합니다. 621 S.Virgil Ave, #252, Los Angeles, CA 90005/ T.213.487.0691

입으면 허리문제가 해결되는 희한한 옷!!

너무 쉬운 NB 코르셋의 원리를 알면 통증의 원인을 쉽게 고칠 수 있습니다. NB 코르셋은 내 몸을 멋진 틀(NB 코르셋 깁스에 넣어 자연 치유력)을 이용한 과학과 지혜로 미와 건강을 만들어 내는 **결작품**입니다.



허리교정을 위한 남성용도 있습니다.

NB 코르셋의 특징

1. 24시간 입어도 갑갑하지 않고 편안함
2. 입자마자 자세가 달라짐(교정)
3. 입자마자 혈액순환이 달라짐(통증완화)
4. 특수 공법으로 수축되지 않고 인체에 완벽한 섬유와 세계 특허 이중지퍼 사용. 한국 **식약처에 의로기기로** 등록된 **교정 코르셋**

쓰러진 토마토를 세우는 것은 **버팀목**입니다. 의사가 척추를 바르게 세울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깁스를 하지 않고는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버팀목(기립근)이 약해서 제대로 지탱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NB 코르셋은 늘어지지 않는 특수 천으로 깁스를 대신하고 코르셋 속의 10개의 버팀목이 약한 근육을 대신하여 골반과 척추와 경추를 바르게 교정해줍니다.

NB 코르셋이 필요하신 분

- >> 디스크환자
좌골신경통 허리통증 척추측만증 교통사고
- >> 각종 질환
요실금 증풍 관절염 손발 저림 만성피로
- >> 체형교정
골반 틀어진 분 허리 굽으신 분 O형다리 거북이목
- >> 미용효과
목주름 많은 분 얼굴비대칭 복부비만 부정교합



NB CORSET Tel: 323.316.6815

'기적의 섬유'로 만든 '음이온 건강이불', 발이 불편한 분은 'NB 메디칼 슈즈', 가장 강한 'SJP 슈퍼 유산균 건강제품 전문'

무료 광고지참시 방문하신 모든분께

*자세 사진 촬영 *현미경 혈행 검사 *체질 검사

CHRISTIAN BUSINESS

www.chdaily.com

광고문의 213.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Classified AD



Family 자동차 \$중고차 최고가 매입\$

새차 맞춤 리스 중고차 매매 "기본 \$700 더 드립니다."

213.453.5900 714.743.1000

933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06 familyauto.us



100% 천연성분 식후 혈당 상승 억제, 콜레스테롤 수치 개선 기능이 강화된 PRO-Z GOLD

당뇨! 당뇨는 원인치료가 해답입니다!

40년간 Zinc Metabolism을 연구해온 승문기 박사는 아연이 근육세포의 당대사와 핵산 배타세포의 인슐린 반응도에 깊게 관여 되는 사실에 주목하여, 아연에 CHP를 첨가한 신합성 물질(ChP Plus Zinc) 프로지(Pro-Z)를 개발했습니다. 정부 연방 병원인 US VA Hospital에서 47명의 당뇨환자를 대상으로 12주 동안 프로지(Pro-Z)를 복용한 결과 당화혈색소(HbA1c)가 평균 2% 감소, 70% 환자에서 혈당 수치가 29% 개선되는 결과를 보였습니다.
Source: Metabolism, Vol 47, No 1, (January), 1998: pp 39-43 미국특허 # 5,411,748 and #5,997,908

재미과학자 승문기 박사
-한국인 최초로 미 정부 지원으로 당뇨신약개발, 원 FDA임상 2차 실험 진행
-전 UCLA 의과대학 연구교수
-미·제향균인병원 수석연구원
-세계 3대 인명사전
"Marquis Who's Who" 등재

PRO-Z USA Inc. 213.434.1170
미국 공식 판매처
www.prozusa.com / prozusa1@gmail.com
621 S. Virgil Ave. Suite 260 Los Angeles, CA 90005

1병 \$89 3병 \$249 6병 \$474
+tax +tax +tax

한국에서 미국으로

송금 전문

(213) 342-7776 월서+킹슬리

법률 문제로 답답한 가슴을!!!

공인 법무사(CERTIFIED L.D.A & PARALEGAL #227 / BOND 5785BF1090)인
제가 속 시원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변호사한테 가시기전에 "꼭 먼저" 만나 보아야 할 사람입니다!

퇴거, 파산, 이혼, 이민, 민사소송
기타 각종 법정 서류 작성

714-667-0728 (영어) 2112 N. MAIN ST. #290, SANTA ANA
213-487-0728 (영어) 1543 W. OLYMPIC BL. #422, LA

TONERSUM 칼라레이저 프린터 리스(임대) \$49.99/mon 선착순 5명

\$69.99 \$149.99 SAVE: \$80.00 (53%)
MULTIFUNCTION LASER PRINTER
레이저 프린터(칼라흑백)
Blow Out Sale!!
삼성토너 스페셜 리스트

SAMSUNG SCX SERIES SCX-3405W

HP, Brother Big Sale Tel. (626) 802-5712

사고 팝니다 New & Used Buy & Sell

각종 조립식 선반 전문

Select color

아외용 천막 Canopy Size (5'x5') (10'x10') (10'x20')

상점 및 그라지용 Boltless Shelving

창고용 Pallet Rack

중고 선반 대량 보유

99센트 미켓 선반, 창고 선반 수량 불문 현찰 매입

조립식 선반을 전문으로 취급하여 딜러십을 보유한 선반 전문 회사

(323)855-5687 / (213)200-3050 / (213)623-5491
646 S. San Pedro St. Los Angeles, CA 90014 Downtown LA (Between 6th, 7th St)

법무사 사무소 법적 해결

소장: Kenny Oh (323)377-5702 ko7law@gmail.com

변역 (학술/사업/개인) | 법정통역, 소송/방어서류
민사법 의도/과실/사기/부당 행위 피해, 입주자분쟁(소송/방어)
접근 금지 법원 명령
계약법 작성/분석/분쟁/수금문제 가정법 약식/일방이혼

1543 W. Olympic Bl. #580 LA, CA 90015 Law Office of R. Song

모/든/문/제/체/류/신/분/과/무/관

TOGO & 캐더링 원형 머글레 싸갈레

연말연시 동행회 및 단체모임, 교회행사, 기독교모임 캐더링·도식라

오일별 음식 하루종일 \$7.99

월: 부대찌개 돈가스 오징어볶음 새우볶음밥 해물수제비
화: 타불고기 콩치구이 오모라이스 떡만두국 우거지잡채
수: 동태찌개 함박스테이크 피스타치오 카레라이스 유부+우동
목: 김치탕 제육볶음 자반조림 소고기볶음밥 오일떡볶이
금: 궁치김치 떡볶고기 민어구이 김치볶음밥 오징어찌개
토: 부대찌개 갈치구이 돈가스 치킨테리야끼 김밥+우동

323.660.1004 (천사) 4429 W. Beverly Blvd. LA CA 90004
213-598-5552

주일은 쉽니다. 타운내 신속배달 (2인분 이상)

삼성이 하면 다릅니다!

귀국· 시내· 타주이사· 차량운송

한국식 포장이사도 해드립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고객 사랑을 실천하겠습니다~

무료전화 877-580-2424 310-538-3333

18118 S. Broadway st #B Gardena, CA90248 www.easy2424.com

손바느질 양복의 명가 골드핑거

T.213.386.5858

직접재단/직접재봉/남녀맞춤/명품 옷수선

Master Tailor 김병호

975 S.Vermont Ave. #102, Los Angeles., CA 90006

온돌마루

UL마크 인증제품 사용
NRTL(미국 전기 안전 규격제품).
확기적인 절전제품/ 전자파제로
인방 아랫목, 거실, 기도실, 유아방, 침실방 설치중

피코 건축자재 (피코+카탈리나) 213)256-4884

A-1 정비 오일 교환

엔진 & 미션 전문

76 오일사용

10% 할인

\$23.99 *tax 6cyl.
\$18.99 *tax 4cyl.
\$28.99 *tax 8cyl.
(Carbon Filter Extra)

✓트렌스미션 ✓타이밍벨트
✓브레이크 ✓툰업정비

Tel. 323.737.2922 Trans (323)731-0613 Engine (323)752-2971

헤어컷 특강

미용을 배워 신고하는데 사용하실 분들을 위해 특강을 엽니다.

- 대상: 전도와 선교를 위해 사용하실 분 (현재 프로 미용인도 OK)
- 회비: 월 \$10
- 강사경력: 전 국가대표 선수권자
- 문의: 213.392.2323

한방생리대 도.소매 G. Together Inc.

- 인삼생리대
- 익모초생리대
- 한방생리대

Edward Kim 김인태, CEO
213-392-2323 (Korean) 213-500-5896 (English)
3544 W. 3rd St. Los Angeles, CA 90020 / G_Together_Inc@yahoo.com

베데스다 의료 봉사센터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의료혜택을 못받는 분들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치과와 양, 한방등의 진료의 혜택을 드리고 있습니다.

문의전화 213-384-7078

쇼스피드 다이어트 치아미백

1주에 7파운드~25파운드 감량 3달분 \$60

하머니크림 (습윤크림)

- 임신 중 튼살 방지
- 건선으로 인한 붉은 주름(얼굴, 목)
- 트고 갈라진 피부 보습(발 뒷꿈치)
- 치질(항문하혈, 통증)
- 독소제거
- 갑상선, 당뇨병, 정력제
- 불임증(자궁축, 하혈)
- 우울증
- 관절염
- 원형탈모
- 구연산 캡슐

배배는 속변약 몸 전체 부종 빠지는 약 한달 \$50

영선한의원 Young Sun Acupuncture & Herbs Clinic
한국어: 213.380.7800 각종보험취급
영어: 213.380.6868 (오바마 케어 포함)

LA MEDICAL CENTER 3663 W 6th St. #308 Los Angeles CA 90020(6가와 아드모어) 영업시간: 월~금:10시~5시/ 토 10시~2시

win 원현대 칼슨 HYUNDAI

이번달 스페셜 리스 프로그램 이벤트 "2015년형 뉴 제네시스 입하"

현대차를 원하시는 당신께 최고의 가격을 제공하겠습니다!!

www.winhyundaicarson.com
한인타운에서 15분에서 20분거리
브로커 환영

Alex Shin 한인 Manager
2201 E. 223rd St., Carson, CA 90810
ashin@winhyundaicarson.com
Phon: 310.830.5100 (Ext 653)
Cell : 562.900.2399
Kakao ID: alexshin878

Genesis 2015 ALL IN STOCK @ \$36,120
ALL NEW 2015 GENESIS SEDAN

Genesis 2014 ALL IN STOCK @ \$36,120
LEASE FOR \$249 PLUS TAX @ 36 MONTHS

Equus 2014 signature ALL IN STOCK @ \$61,920
LEASE FOR \$399 PLUS TAX @ 36 MONTHS

주말에도 오픈합니다.
2201 East 223rd St. Carson 90810

유학생, 상사 주재원 도와드립니다.
Bad Credit, No Credit 연락주세요
미 서부지역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딜러

All advertised prices exclude government fees and taxes, any finance charges, any electronic filing charge, and dealer document processing charge, and any emission testing charge. All vehicles are at Carson location. Offers available through Jan. 27, 2014

분단이 해방으로 이어져 평화통일의 해 떠오르길

‘3·1절 한국교회 특별기도회’ 개최, 이영훈·오정현 목사 설교



교인들이 예배당을 가득 메운 가운데 '평화통일을 위한 3·1절 한국교회 특별 기도회'가 열리고 있다.

3·1절 96주년, 통일의 염원이 기도로 타올랐다. 한국교회평화통일 기도회(대표회장 김삼환 목사, 이하 통일기도회)는 1일 저녁 서울 명성교회에서 '평화통일을 위한 3·1절 한국교회 특별기도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이윤재 목사(통일기도회 집행위원장)의 인도와 김삼환 목사의 개회선언으로 시작한 1부에는 2부 기도회와, 3부 통일기도회 발대식 순서로 진행됐다. 2부는 정성진 목사(통일기도회 실무회장)가, 3부는 소강석 목사(통일기도회 실무회장)가 각각 인도를 맡았다. 기도회에서는 한현수 총장(송실대)이 대표기도를 했고, 이배용 원

장(한국학중앙연구원)의 성경봉독과 연합찬양대의 특별찬양이 있은 후 이영훈 목사(평화통일을위한기독인연대 상임공동대표)가 '진리와 자유'(요 8:32)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다.

이 목사는 "진리란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리이다."라고 하며 "예수님은 이 땅에 구세주로 오셔서 가난하고 병든 이웃들을 섬기셨다. 우리 역시 진리이신 예수님의 그 길을 따라가야만 할 것이다. 진리로 무장해 믿음으로 전진할 때, 하나님께서 휴전선을 걸으시고 통일의 은혜를 허락하실 것"이라고 했다.

이어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 진리란 참된 해방을 가져다 주는 것"이라며 "우리가 진리로 무장해 예수님의 사랑을 전할 때 참된 자유가 이 땅에 임할 것이다. 이 대한민국을 예수의 사랑으로 변화시키자. 우리들이 먼저 성령 안에서 변화돼 사랑을 실천하면, 휴전선이 무너져 남북이 함께 주님을 찬양하는 날이 반드시 올 것"이라고 전했다.

두 번째 설교자로 강단에 선 오정현 목사(주빌리구국기도회 공동대표)는 '작은 자들이 갖는 통일의 꿈'(시 60:20~22)을 제목으로 한 설교를 통해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룬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작고 약한 자들을 통해 일하신다"며 "우리는 하나님의 이 시각을 회복해야 한다. 그리고 이 정신으로 돌아가 시대적 책임을 감당해야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한편, 통일기도회는 오는 8월 '평화통일을 위한 8·15 한국교회 특별기도회'도 계획하고 있다. 이들은 "국내의 1백 개 도시, 1천 개 교회 이상에서 연인원 약 1백만 명이 참여 민족의 소원을 품고 울부짖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진영 기자

한기총·한교연

“서울시, ‘봉은사역’ 명 철회하라”



“특정 종교사찰 이름 역명은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며 ‘봉은사역’명을 철회하고 무리가 없는 ‘코엑스역’으로 명명해야 함을 주장하는 한기총·한교연의 공동 기자회견이 진행되고 있다.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연합기관인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대표회장 이영훈 목사)와 한국교회연합(한교연·대표회장 양병희 목사) 양 단체가 지난 2월 27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CCMM빌딩에서 서울시(시장 박원순)의 종교편향 시정을 촉구하는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는 지하철 ‘봉은사역’ 명을 철회하라”고 강력 촉구했다.

이날 공동기자회견은 한교연 기획홍보실장 김훈 장로의 사회로 양 대표회장의 인사 후 엄진용 목사(한기총 총무 직무대행)의 서울시 봉은사역명 제정 경과보고, 양 대표회장의 공동성명 발표,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엄진용 목사의 경과보고에 따르면 박원순 서울시장은 작년 2월 6일 봉은사 주지 면담에서 ‘봉은사역’ 제정과 관련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고, 작년 3월 강남구청 지명위가 서울시 지명위에 ‘봉은사역’(코엑스)과 ‘코엑스역’(봉은사역) 두 안을 제출했으나 서울시 지명위가 1차적으로 ‘봉은사역’으로 단독역명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후 코엑스가 ‘역명 병기’ 요청을 했으나, 서울시 지명위가 2차로 코엑스의 역명 병기 요청을 거부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박원순 시장은 작년 5월 봉은사 주지 출판기념회에 참석

했고 작년 6월 지방선거에서 재선한 후 작년 12월 박 시장이 도시철도역명 확정 고시(봉은사역 등 4개역)를 했다고 밝혔다.

이 문제와 관련해, 올해 기독교계 단체와 교계 언론은 ‘불교계가 봉은사역 명명에 조직적으로 개입했다’고 보도하며 강하게 반발한 바 있기도 하다.

이날 한기총과 한교연은 서울시의 봉은사역명 철회를 공식적으로 요청했다. 그 이유로는 “첫째, 지하철 역명에 특정 종교의 사찰 이름을 쓰는 것은 서울시가 정한 원칙에 위배된다. 둘째, 다종교사회에서 서울시가 종교편향적 행정을 하게 되면 종교간 갈등이 빚어져 오히려 사회혼란을 초래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셋째, 한국기독교는 불교를 비롯한 어떠한 타종교와의 갈등과 대립을 절대로 원치 않기 때문이다.”라고 밝히며 서울시가 봉은사역명 제정을 즉시 철회할 것을 강력히 주장했다.

또한, 양 단체는 “우리는 서울시가 이제라도 ‘봉은사역’ 명을 철회하고 모든 시민에게 친숙할 뿐만 아니라 정서적으로도 인정되는 ‘코엑스역’으로 재명명해 줄 것과 종교간 갈등을 최대한 피하기 위해 봉은사를 병기해줄 것을 거듭 제안한다”고 전했다.

이동윤 기자

한교연, ‘100대 교회’ 대신 ‘청지기교회’ 선정하기로

임원회에서 일각의 우려 감안해 변경, “역사적 책임 갖고 함께 봉사”



한교연 임원회가 진행되고 있다.

당초 ‘100대 교회’를 선정하기로 했던 한국교회연합(대표회장 양병희 목사, 이하 한교연)이, 계획을 다소 변경해 ‘한국교회에 희망을 주는 청지기교회’를 선정하기로 했다.

한교연은 3일 서울 종로 한국기독교연합회관 한교연 회의실에서 제 4-2차 임원회를 열고, “‘100대 교회’ 선정이 자칫 교회의 서열화를 부추기고 위화감을 조장할 수 있다”는 우려를 감안해 이 같이 결정했다.

한교연은 최근 ‘한국교회 현안 대

책’을 위한 교단장·총무 간담회(이하 간담회)를 통해 한국교회가 당면한 과제를 함께 풀어가는 취지에서 ‘100대 교회’를 선정하기로 했다.

한교연에 따르면, 이날 임원회가 선정하기로 한 ‘한국교회에 희망을 주는 청지기교회’는, 한국교회와 사회를 위해 역사적인 책임을 가지고 함께 봉사하는 교회들이다. 아울러 이들은, 한교연이 지난 간담회에서 정한 주요 현안, 즉 동성애, 이슬람, 안티기독교, 종교인과세, 이단사이

비 대처, 통일 준비 등에도 함께 대처해 나가게 된다.

이 밖에 임원회는 예장 합동총신(총회장 강홍대 목사)과 기독교대한감리회 성회(총회장 김광욱 목사)에 대한 가입심사 결과를 보고 받고, 합동총신에 대해선 가입심사 위원회로 보내 다시 검토하기로 했으며, 기감 성회는 실행위원회 개최 전까지 가입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도록 했다.

또 신규 가입 교단 심의를 위한 실행위원회 개최를 허락하고 세부 일정은 대표회장에게 일임했다.

한교연에 가입하고도 의무를 다하지 않고 활동을 하지 않는 회원에 대해 회원권을 정지하는 문제는, 정관에 따라 적용하되 대표회장에게 맡겨 처리하기로 했다.

임원회 진행에 앞서 드린 개회에는 대표회장 양병희 목사의 사회, 공동회장 김효종 목사의 기도, 공동회장 우종휴 목사(합신 총회장)의 ‘형제의 연합’ 제하의 설교로 진행됐다.

김진영 기자



두 대표회장 양병희 목사(좌)와 이영훈 목사(우)가 기자회견 후 악수하고 있다.



굿네이버스는 기독일보와 함께 저개발 국가의 아동들이 더욱 건강하게 성장하고 마음껏 공부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회와의 다양한 협력 프로그램을 통해 생명을 잃은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 원합니다.

실제로 지금도 아프리카에서는 5세 이하의 아이들 100만명이 영양실조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영양제 한병과 약간의 식량이면 허무하게 끝나가는 이 생명들을 살릴 수 있습니다.

굿네이버스와 함께 이 아이들의 후원자가 되어주세요.

굿네이버스 친선대사 최수종 드림



당신의 나눔만이 아이들의 '희망'입니다.

후원문의 1-877-499-9898 www.goodneighbors.org

굿네이버스는 UN의 최고 고문기관으로써 1991년 한국인이 설립하여 전세계 32개국에서 구호개발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국제구호개발 NGO입니다.

100% 천연성분

당뇨! 당뇨는 원인치료가 해답입니다!

당뇨! 원인 기능 개선제

PRO-Z GOLD



Special Price

✓ 미국 독점 출시 기념 파격 세일

1병 \$89 + tax 3병 \$249 + tax 6병 \$474 + tax



송해선생님이 자신있게 추천하는 프로지골드

식후 혈당 상승 억제, 콜레스테롤 수치 개선 기능이 강화된 PRO-Z GOLD

당뇨병의 원인?

혈액 속의 포도당 수치, 즉 혈당이 비정상적으로 높은 상태가 지속할 때를 말합니다. 음식을 섭취 후 혈액으로 들어온 포도당이 세포 속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췌장 베타세포에서 나오는 인슐린이란 호르몬이 필수입니다. 만약 인슐린이 부족하거나 분비된 인슐린이 제 역할을 못하게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당뇨병의 치료방법은 있는가?

당뇨병은 조절은 할 수 있으나 완치는 불가능하며 단지 당뇨병의 진행을 정지시키고, 동시에 당뇨로 인한 합병증의 발생 및 진전을 예방하는 것이 일반론입니다. 현재 당뇨 환자들이 주로 복용하는 당뇨약들은 천연물질이 아닌 화학물질로 장기 복용 시 심각한 부작용(심장부종, 신장부종, 간독성)과 방광암 등을 유발하는 것으로 유수의 대학의 연구팀들의 연구결과로 드러났습니다.

송문기 박사팀은 근육세포의 당대사와 췌장 베타세포의 인슐린 반응도에 깊게 관여 되는 사실에 주목하여, 아연에 CHP를 첨가한 신합성 물질(CHP Plus Zinc) 프로지(PRO-Z)를 개발했습니다. 정부 연방 병원인 US V.A. Hospital에서 47명의 당뇨환자를 대상으로 12주동안 프로지(PRO-Z)를 복용한 결과 당화혈색소(HbA1c)가 평균 22%감소, 70% 환자에서 혈당 수치가 29% 개선되는 결과를 보였습니다.

Source: Metabolism, Vol 47, No 1(January),1998: pp 39-43) 미국특허 # 5,411,748 and #5,997,908

당뇨병 회복의 새로운 메카니즘 '프로지'

'프로지'는 혈당강화제와는 달리 당뇨의 근본원인(인슐린 저항성 및 췌장 베타세포 파괴에 의한 인슐린 분비기능저하)을 해결하는 메카니즘입니다. 당뇨병의 원인은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 면역력이 저하됨으로써 생긴 결과입니다.

아연은 면역력 강화에 중요한 필수미네랄입니다. 포도당을 세포까지 운반하는 역할을 인슐린이 하는데, 당뇨 환자들은 혈액 속에 여러 가지 요인(비만, 과음, 운동부족, 스트레스)에 의해 인슐린 반응도가 낮고, 인슐린 저항성이 높습니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IDE(Insulin Degradation Enzyme)라는 소화효소가 필수적인데 이 소화효소의 주성분이 아연이며, 아연은 췌장 베타세포에서 인슐린 저장에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신 합성물질(CHP Plus Zinc) 프로지는 우리 몸속에서 근육과 지방세포로 아연을 운반하여 아연의 신진대사 활성화를 통한 인슐린수용체의 활성화 및 인슐린 수용체의 생성을 촉진함으로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합니다.

아연이 당대사와 밀접하다면, 왜 아연으로 만든 당뇨약은 없나요?

아연은 특성상 섭취 시 인체 내에 머무르는 시간이 짧고 흡수율이 떨어진다는 약점이 있습니다. 음식에도 굴이나 소고기 등에 아연이 존재하지만, 섭취 후 3~4시간이면 소변으로 배출되고 몸에 흡수가 안 되는 것입니다. 아연이 췌장 세포 기능 복원이나, 근육세포의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해당 세포내 아연흡수율이 획기적으로 증가하여야 성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의로계는 지금까지 아연 흡수율 제고 물질이나 방법을 발견하지 못하고 있는것이 현실입니다.

송문기 박사의 신합성물질 '프로지'는 동물의 전립선에서 추출한 물질(CHP)을 아연을 킬레이트시킴으로써 아연이 일정시간 인체에 머물며 제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여 당의 대사를 도와 몸의 기능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송문기 박사와 연구팀은 한국인 최초로 미 정부 지원으로 이 기술을 개발해 특허를 취득하고 당뇨환자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



송문기 박사

UCLA 의과대학 연구 교수
미, 재향 군인 병원, 수석 연구원
세계 3대 인명사전 Marquis Who's who에 등재
40년간 당뇨연구에 매진한 대한민국 대표 과학자

프로지를 개발한 송문기 박사는 인류 복지 건강에 위해가 되는 당뇨, 비만, 알츠하이머(치매)의 두려움에서 벗어나도록 40여 년간을 연구에 매진했습니다. 그는 하와이대학, UCLA 대학교수 미 재향군인병원(US VA Hospital)에서 근무했으며, 가장 시급한 당뇨병을 치료할 목적으로 미국 연방식품의약품(FDA)로부터 신약 임상시험을 진행중입니다. 그 전에 FDA의 독성 TEST, 국제규격에 부합되는 임상 TEST를 거쳐 FDA로부터 신약판매 전에 건강기능식품(PRO-Z)으로 허가를 받아 당뇨병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의 당뇨의 원인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당뇨원인 기능개선제' 프로지를 출시했습니다. 송문기 박사는 체내 아연 대사와 관련한 각종 연구성과를 통해 세계 3대 100인 인명사전 중 가장 권위 있는 Marquis Who's Who에 등재된 인물입니다. 현재 세계적인 과학지인 NATURE 등 세계 우수 연구 관련 기관의 심사관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PRO-Z

한국 50만명 판매 SALE 1병 \$69 + tax 3병 \$179 + tax 6병 \$342 + tax

타주 대리점 및 프로지셀러모집중

213.434.1170

www.prozusa.com / prozusa1@gmail.com
621 S. Virgil Ave. Suite 260 Los Angeles, CA 90005

PRO-Z USA Inc.

미국 공식 판매처